朝鮮日報
夕刊 十五日(月)

英世界大戰出征將士多數
大擧「에」國을援助
무氏 橫暴難詰聯盟原則貫徹코저 全國에飛機、極秘裡에義勇軍組織
戰機압두고東阿出征

【倫敦十四日發聯合】 에디오피아의 紛爭이 勃發된以來 英本國의 輿論은 一齊히 뭇솔리니首相의 橫暴를 詰難하야 聯盟의 原則을 貫徹한다는 名目下에 黑人帝國支持를 主張하고 잇든바 和協委員會의 決裂以來戰機가 切迫됨에따러 世界大戰에參加하야 西部戰線其他各地戰線에서 勇名을날니든 陸海兩軍의 將士는 全國에 檄文을 撒布하야 極秘裡에義勇軍을 組織하고 自進外國部隊라 稱하야 八月의戰機를압두고마츰내東阿戰線에出征키로되엿다 義勇隊 本部에서는 將兵一日의 出征數로 十六志願을 要求하고 에디오피아 皇帝하일、세라시에一世에 參戰許可를 申請하고 잇는데 에디오피아政府도 右申請에 應諾하리라고 觀測됨으로 戰端이열닐 境遇 米國人 飛行隊와 倂行하야 英人義勇隊는 에디오피아東阿戰線에서 活躍하게되리라고觀測된다

伊國各紙一齊히
三國干涉排擊
露骨的으로實力解決을力說

【羅馬十四日發聯合】 伊太利各地新聞은十三日부터 一齊히對에디오피아强硬政策을 强調하야 모다 聯盟排擊論、英佛干涉反對論을揭載하고 露骨的으로 에디오피아問題에對하야 實力解決을 力說하고잇는데 때마침 아브놀聯盟事務總長의 巴里訪問直前인만큼 오로지 佛國牽制의意味를 가진것으로보인다 또各半官紙等 指導的言論機關의 諸說을 綜合하면 다음과갓다

▲國際聯盟排擊

一、伊太利는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한限 一切國際聯盟의干涉을 許與치안음은 이미자조聲明한것과갓고 伊太利로서는 에디오피아의 今日의侮蔑的態度에鑑하야 斷乎히此를容認치아니하면안된다

一、에디오피아紛爭의 原因의하나는 植民地擴大를必然的欲求가되게한 伊太利의經濟的發展性으로 에디오피아의 拙劣한機會主義的事大政策이업섯든들事態는 여긔까지 惡化되지안엇슬것이다

一、如斯한 立場으로 伊太利는 聯盟國間의 諸國으로부터에디오피아와 同等의 待遇를밧는것을不肯한다

一、伊、에仲裁委員會가 停頓되엿스므로 假令聯盟理事會가招集되여도 伊太利從來立場은不變한다 따라서 伊太利는理事會에는出席하나委員을任命하과如한 理事會의越權行爲로보고 斷乎히 排擊치안으면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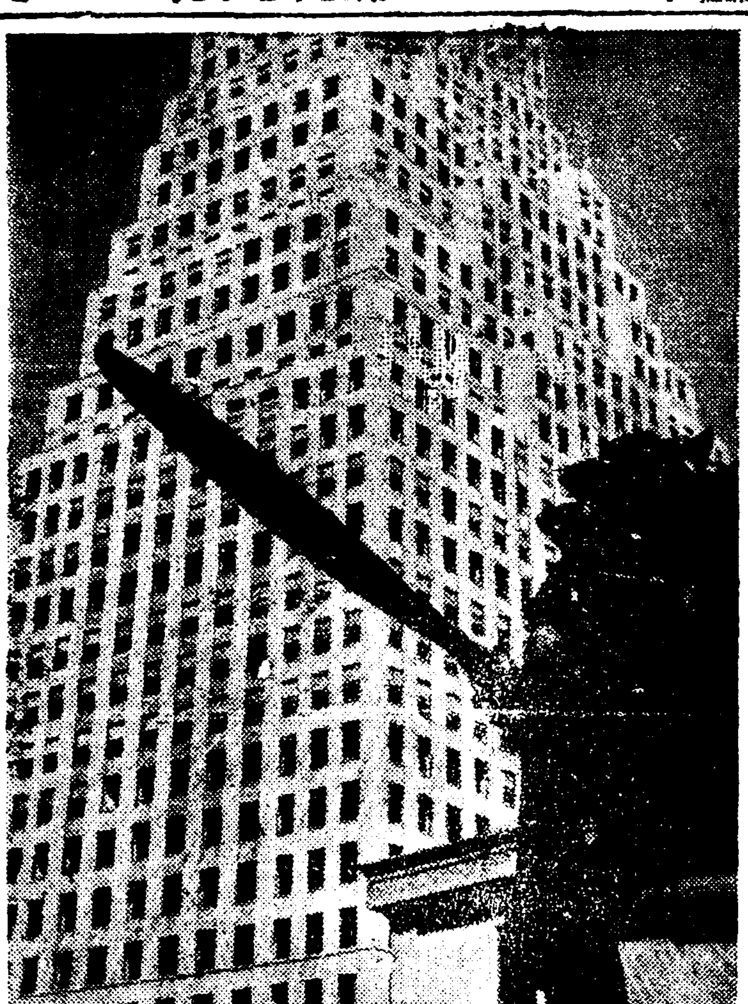
▲三國會議反對

一、伊太利는英佛에 노것어 主唱者가 됨을不拘하고 一九〇六年의 英佛伊三國協定에 基한 和平會議를 開催함과如한 案에는 同意할수업다

一、伊太利는 英佛兩國이 먼저 에디오피아에在한 伊太利의特殊地位를 確認함을 要求한다

一、伊太利는 原則으로서 에디오피아와의 直接折衝으로 解決할方針임은 자조聲明한바로서 明白할것이다 假令三國會議가 開催된다하여도 伊太利는 從來態度를 堅持하과如한 일은 잇슬수업음은 英佛兩國은 熟知하고잇슬러이다

一、三國會議開催에對한 伊太利側의 重大한反對는 이것이決코 에디오피아에在한 伊太利의地位를保障하는것이 아니라는點에存한다 이點으로 英佛伊三國間協定은 結局伊에兩國의直接解決안 될신로될것이다



◎二十世紀의文明이란?— 蒼空에 놉히聳立한 數十層의 摩天樓를 時速百數十哩로서 大空을 快翔하는 飛行機、하고저하는바는 達치못함이업는 人類의 威大한 成果物質文化가 이一枚의寫眞에 壓縮되여잇스니 寫眞은 紐育의 中心地帶에잇는 飛行機發着所에서 摩天樓를眺望한것

米國大建艦計畫은
渡洋作戰을目標
對日政策이主眼인點明瞭化
海軍當局은事態重視

【東京電話聯合】 條約期滿海軍의實衡을目標로 大造艦案計畫을進捗하고잇는 米國에서는 前般議會를通過한 비손海軍擴張案百二隻中의 二十四隻에 對하야 來八月上旬起工命令을 發하기로決定하엿다 建艦計畫의 進捗에 伴하야 同計畫이오직 對日政策을主眼으로한것이 漸次明瞭하게되엿슴으로 日本海軍에서는 從來보다 더욱重視하게되엿다 卽米國은一九二二年華盛頓 條約締結後라할지라도오래동안建艦을 中止하엿섯는데 滿洲、上海兩事件當時에 至하야 日干涉을主張하면서도 積極的態度로나가기를 躊躇한것은當時米國海軍力이 日本에比較하야劣勢이엇기때문이라한다 爾來海軍力의擴張에 邁進하기로秘密히根本方針을 確立한듯하며 近時米國海軍이 取하고잇는 渡洋進行作戰主義와 如한것은 這間의消息을 말하는것이다 滿洲事變以降卽一九三一年以降에잇서 建艦計畫도亦是如實히 對日作戰의 必要에備키爲한것이라고 看破할수잇다 同年度以降今年度까지의 建艦計畫의建設別數는左와如하다 五個年間의 起工數은 八十七隻 三十三萬七千噸 竣工數은 二十八隻 十三萬五千六百八十噸 明年度以降에잇서 竣工되여잇고더욱 驅逐艦三十六隻、潛水艦五十四隻이 竣工되게되엿다

明年度부터實施할
地方稅制整理大綱【一】
牛島內務局長談形式으로發表

地方稅制整理方針은 大正十五年부터 稅制整理會議를 經하야 大體를 決定하엿든바 國稅에關聯되는바 만흠으로 昨年國稅整理를機會로 地方稅制도 整理를보게되어 마침내 明年度(昭和十一年度)부터 實施하게되엿는데 그內容에 對하야 牛島內務局長談의形式으로 發表하엿는데 그要綱은如左하다

地方稅制整理大綱

地方稅制整理는 그方針이 決定되엿는데 今回에行하는 地方稅制整理는 昨年新設된 國稅第三種所得稅의 附加稅를 設할것이고 近年日本內地에서 만히 論議되든 財政調整交付金制度의 創設이든 從來不合理라고하든 道의戶稅家屋稅의 地域別賦課의 廢止等이 議論되엿든것이나 昨年第三種所得稅가 新設되야 그負擔이 特殊附課함에 增加되엿는데 얼마못되야 畢竟的으로 其附加稅를이르킴은 너머急激한 負擔增加를來케할뿐아니라 今日의 實情으로는 此附加稅로서 從來의 戶稅에代한道의 中樞稅로하기는不可能함으로 第三種所得稅附加稅는當分間此를 設치안키로 決定되엿다 따라서道의 中樞稅로서는 從來의戶稅와 系統을같게한 戶別稅로써하고 從來戶稅는府及特殊邑에는 課치안햇스나此를 道內一圓에賦課하야 다함께 道民으로서는 地域에不拘하고平等하게 道稅를 負擔케할것이다 따라서 從來의戶稅及家屋稅는爲先 廢止케되는데 稅의 賦課主義로보면 土地에 地稅附加稅가잇고 林野에 林野稅가잇고 車輛에 車輛稅가잇음과가치 家屋에對하야도相當한 負擔을 하게함은 負擔의 均衡上必要라고 認定함으로 새로이 家屋稅를 課하야 道內一圓에賦課하게되엿다 이것도道에도 稅의 負擔力이 적은것이만흠으로 적은家屋에 對하여는 課稅치안키로되엿다 그리고從來府邑面이 特別稅로 戶別稅를賦課하고잇는 「戶別割」는 것고 道의 戶別稅의 附加稅로하고 또府만이 賦課하고잇는 家屋附加稅를 府邑面에도 賦課할수잇게되엿다 以上 說明하자면 從來負擔과 比較하야 容易하게 及一部의 邑에서는 從來負擔하고잇든 家屋稅外에 道의 戶別稅의 負擔이 加하고 其他邑面에는 從來負擔하든戶稅外에家屋稅의負擔이 加하게되엿는데 全體로보면 戶別稅의 一戶平均額은 三十五錢乃至四十五錢低下되여잇다 그리고家屋稅는 本來賃貸價格을 課稅標準으로하는것을 理想으로하나 其實行에는 日本內地에서도 相當한困難을感하고잇는實情임으로 朝鮮에서는 特히 時期尙早라고認定하고 外形標準에依하기로하엿다。 다음에새로營業稅로 營業稅를 賦課하기로 되것은 「營業稅、取引所稅及鑛稅의附加稅」로、營業稅의取引所稅의附加稅에對하여는 從來府邑面에있서서만 附加稅를賦課하고 道에서는 課稅치안햇스나 道民으로보아 賦課하는것이 適當하다고 認定하고 此이다

伊領土擴張要求는
斷乎排擊할따름
「에」國皇帝强硬히宣明

【電通아디스아베바十四日發】 에디오피아皇帝 하이레、세라시에陛下는 十四日伊太利의領土擴張에關한 要求는 斷乎히 排擊할수박게업는것이라고 左와如히强硬히 宣明하엿다

伊太利側에서는 今日까지 勢力圈內에잇는 地方에 對하야 自國의軍隊로하여금 警察權을 行使하려고하고잇는것을 理由로 事實上領土의擴張을要求하고잇는데 에디오피아로서는이러한要求는如何한種類의것을不問하고拒絶할밧게업다、如斯한讓步는必然的으로領土倂合結果를 齎來할것이明白하기때문이다 또當地一般民間에는 英佛이伊太利의便을드러 에디오피아로부터伊太利에對하야 經濟的讓步를 하도록要求치안을가하는 危懼의念이 增大하고잇고 또 當米國務長官이英佛伊三國大使의 會談을한데對하야 右는英佛伊로부터룰즈벨트大統領에對하야 伊에開戰前에도武器禁輸를 發令케할것을要請한것이아닌가고 非常히不安한생각을가지고잇다(寫眞은 에皇帝)

辭令

遞信事務官 岩男 省三
任總督府遞信事務官(四等)
命遞信局監理課長
總督府保健技手陸軍三等軍醫 岩城 隆一
任總督府保健技師
命海州刑務所在勤
總督府教誨師 高峽 頭英
奏任官으로待遇
命公州刑務所在勤
總督府教誨師 鷹江 孝雄
奏任官으로待遇
命谷山刑務所在勤
總督府教誨師 神崎 禾念
命平壤刑務所在勤
同 淺野 彰
命西大門刑務所在勤
朝鮮道立醫院醫官 崔 相 彩
總督府稅關鑑稅官 犬童 光治
同 飯田 左內
總督府稅關監査官 井口米治郞
依願免本官
總督府教誨師 齋藤 成定
同 杉山 顯正
總督府保健技師 片瀨 秀雄
依願免本職

人事·集會

▲土井一義氏(京畿道自動車協會長) 曹秉相氏(同副會長) 白石靈氏(同副會長) 野村雅三氏(京城自動車株式會社專務) 梅田新太郞氏(同協會理事) 新法令에依한自動車協會設立人事次 十五日來社
▲朴珞夏氏 本社落成祝賀人事次 十五日來社
▲廣東駿氏(朝鮮中央日報記者) 同上
▲秦豪燮氏(同上開城支局長) 同上

天皇皇后兩陛下
葉山御用邸에行幸啓

【電通東京電話】 天皇陛下께서는 御靜養하옵시기爲하야 皇后陛下御同列 孝宮、順宮兩內親王殿下御同伴 十五日葉山御用邸에 行幸啓하옵시엿다 當日 天皇 皇后兩陛下께옵서는自動車略式御鹵簿로 湯淺宮相、鈴木侍從長、本庄侍從武官長、町村行幸主務官等供奉、劍璽를 捧하시고 午前九時二十分 宮城 御出門하사 同十時東京驛發車로御發驛 同十一時逗子驛 御着、葉山御用邸에 着御하옵시엿다

日滿經濟關係의
永遠强化約定
日滿經濟共同委員會設置協定
新京서歷史的調印完了

【電通新京十五日發】 日滿經濟委員會設置에關한協定案은 去六月十八日滿洲國參議府에서 全會一致可決되엿는데 日本에잇서서는 七月三日樞府本會議를通過하엿슴으로 마츰내日滿兩國經濟關係의 永遠强化를 約束할 同協定案은 十五日午前十一時 滿洲國外交部大臣室에서 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 南次郞氏 滿洲國外交部大臣 張燕卿氏와의間에 調印式이 擧行되엿다 式場에는 南大使 守屋參事官 原田大佐 大野關東局總長 竹內經濟顧問 張外交部大臣 大橋外交部次長 等이 參列하야 日滿兩文으로作成된協定正文은 南大使가 日本文에 張外交部大臣이 滿文協定書에 各其署名調印한後 一同은記念撮影하엿다 協定全文及附屬文書는 左와如하다

外務省改革成案
二千五百萬圓의新規要求計上

【電通東京電話】 外務省은 外交機構에 適應하기爲하야 過般來 應次省議를 開하고 그具體案에 對하야 調査硏究를 進行하고잇든바 大體成案을 엇게되엿음으로 今週初에 省議를開하고 最後案을確定하야 明年度豫算에 新規要求로 計上하야 大藏省에 提出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右에伴하는豫算總額은二千五百萬圓으로改革의大要는如左하다

▲本省關係

一、通商局을 外局으로 昇格하고 勅任長官을 두고 二部七課를 設置하야 積極的으로 通商設定과 擴充을圖하야 機能을整備함(이에要하는 新規要求二十五萬圓)
一、東亞局第三課(滿洲國關係)의 制度를擴充强化함
一、大臣官房에 警務、儀典의兩課를 新設하고 警務課는 在外領事館警察에 屬하는 四千名의 外務省警察官을 統制하고 그任免을 掌理하며 儀典課는外國大公使의謁見事務를 掌理함
一、電信官을增員하야 本省을筆頭로 主要公館에配置하야時代에뒤떠러진 情報蒐報制度를根本的으로改革함
一、記錄官制度를 新設하야 外交記錄의 整備保存을行케하야 外交交涉에便利케함
一、經理官制度를 新設하야 在外主要公館에配置하야 總領事館領事館等에 會計監督에當케함
一、外務巡閱使制度를 官制化하야 海外巡閱에當케함

▲在外公館關係

一、大使館昇格 알젠틴
一、公使館新設 芬蘭、南阿、베네주엘라(南米)이락
一、總領事館新設 齊齊哈爾、厦門、산토스(브라질)、바다드
一、領事館設置 山海關、牧丹江、佳木斯、카라치(印度)外二個所
一、以上外文化事業部의 豫算을 百二十萬圓으로 增額함
一、厄港、歐洲事變에 對한 救恤金一千萬圓을 計上함

八面鋒

十三日 米蘇通商條約이 調印되고、十五日 日滿經濟協定이 調印되고。
◇合從과連衡은 蘇秦과張儀의方法的差異일뿐、鬼谷子의根本精神은 一也。
◇『알블』議長이 倫敦으로 巴里로 諸國의氣色을 마치러다니기에 다리가 찌저질지경。
◇다리를傷하는것은 外科醫가낫게할수잇스나、聯盟精神이 傷하게되면 어느名醫가 손을대일고。
◇安東縣稅關에서「세파-드」警犬을用하야 密輸者를團束。
◇人道가地에떨어지니 犬道가興하도다、無法天地에 法犬이起하니 庶幾乎ㅣ也저。

新聞小史(十)
儒生領導過程
皇城帝國의主位時代
民世學人

獨立新聞을 主宰하든 徐弼氏는 米國流의 新人으로、몸소 東西諸洲의 文物을보고온 君主立憲을 그理想으로 삼든 人物들이어섯고 獨立協會運動時代를 一貫하야 自由民權思想으로 民衆을喚起하고 드높이려는 意圖를 把握하고 잇섯다 그러나 皇城 帝國以來의 新聞들의指導人物은 그와달랏든것이 着實한一點이다 皇城新聞은 最初 南宮檍 柳瑾 等諸氏로組作하야 張志淵 朴殷植 南宮薰및申采浩諸氏가 이를指導하야 누구나全然 儒生이자 漢學者인 분들이니 南宮、柳諸氏는京畿의出로 張氏는嶺南의出이오 朴氏는 海西의出이오 申氏는 湖西의出로다名儒班士이엇섯고 帝國新聞은 初期에 李鍾一 李承晩 數氏에依하야 發行되엇스니 李鍾一氏도 儒生의 先驅이엇고(後에는天道敎에)李承晩氏는 培材學堂의出로 英語를習하고 新思潮에通한 靑年新人으로 光武二年十一月처음 獨立協會事件에는 南宮檍氏와함께 逮捕 入獄되어 『獨立精神』의著書는 當時의 名文이엇스나 言論界의 異彩이엇섯다 入獄初에는 戒護의 눈물속에 依然 帝國新聞의 論說을 主宰하엿다는 逸話는 남겻스나 七年獄中에 別도리가 업섯고 皇城 帝國主位時代에는 결국 모다 儒生領導의 言論陣時代다 그들은 民權主義的인 評論을 形成한것이 그特色이엇섯이오 그國際的地位가 갈스록急迫한 時局에잇서서 漸漸더욱愛國的色彩를띠우게되엇이오 그其論의 方式은儒生式이엇서 斷然하엿다 ×

皇城新聞 創刊號는 우선 漢文通用의 必要부터 論하되 『世宗大王께서 別로 一種文字를 創造하사 愚夫愚婦로 無不開明케하시니 日國文이라』고 비롯한後 『大皇帝陛下께서 甲午中興之會를 當하사 自主獨立하시는 基礎를 세우신由來를 貫하고 『特히 其聖의 遺傳하신 文字와 先王의 創造하신 文字로 並行케하시신 經綸을 援하야 漢讀文이 漢文學者인 中流以上의 사람에게는 도리어 不便한것을 說하엿다 이는 直情徑理的인데 比하야 얼마큼 妥協的傾向임을 알것이오 그論調부터가 그러하엿다 그러나 第二號에는 『結繩遂廢』이라고 太古人적(但支那의) 이약이로부터 비롯하야 『所以通達民意 宣導政事 以佐一代 太平之治』라고 新聞刊行의 趣意가 먼저 主權者의 統治大權을 補佐하는것임을 辯하야 自己의 處地를 回護하기에 留意하엿고 『維萬 幾務之暇 殿接筆削之榮 公是公非 有 勳懲之意 何敢持月旦之評』이라고 新聞은 『則春秋直筆』이라는 史官의 筆法을 밝혀 『論者』或은『章奏』等의 定式에 再議論 한것을 알것이며 『綸音』의 四六文體를 仍用하엿섯다 同十四號 에서도 純漢文으로 『陽秋百段 偶閱 萬國公法 至高麗爲帝之說 自不覺 瞿然一笑 而歎壽也』라고 光武元年以來 建元稱帝하게된 韓國에對한 中國人의 偉大的指導를 特히漢文으로 反駁하기를것도 오늘날에는 古史로서 비김者이며 當時政府의 措置를 批難하는社說에서 『夫政者는 正也오 德者는 得也-라』는 論說들을 漢文에無比한 文套로 敷衍하게한것은 德治的인 善政要望論으로서 盡護한儒者의 面目이 보이는듯하다 李承晩氏 總錄 以後의 帝國新聞도 그論旨로는 이와거의 上下되는者이오 光武九年乙巳 十一月十七日 當時 保護條約成立에關한 報道 및論評으로 社說「是日也에 放聲大哭」이가는것은 鄭桐溪(蘊)金淸陰(尙憲)의 故事를援하야政府大臣等을 悲憤痛駡한것이그特色이 엇고 政治大局에對한 批判的內容은 가지지아니하엿다 光武九年 八月十一日 韓日의關係가 이미大半이 기우러갈때英國人裴說氏에 依하야 創刊된「大韓每日申報」가 登場하기까지에 民間의諸新聞은大體로 獨立新聞의 衝動를받아가 그鋒芒을 거두든편이오 오직 社會의때문에 新文化의風潮와 朝鮮人의 國民的自覺心을 鼓吹하기에 注力한觀이 잇는者이다 이外에新聞으로서는 다시數三種의 並立이잇서서 그經營의數量으로는 初有의盛觀을 이루엇섯다

人畜에無害한
모기잡는線香의
有効成分을
아십닛가?

(A)
除虫菊外에는다른것업습니다
即最近모든모기잡는線香보다一步前進된除虫菊뿐만으로된カトール(紙卷除虫菊)이다。簡單히換言하면除虫菊以外에모기잡는有効成分은업다따라서他人이模倣할수업다日、英、米獨、專賣特許의安住製品カトール를發表할만한除虫菊原料가豐富한大工場에서生産되엿다

(B)
人畜無害의安住모기잡는線香은
모기잡는有効成分인除虫菊을他線香에比하야가장多量으로産出한것도當然한일이며또專賣特許의製法으로製造한만큼그만큼모기의卽死能率도만코混和物이적음으로人體에는無害安全하야日本서最古歷史의信用을가진것도勿論이다

(C)
世界五十餘個國까지進出
氣候風土가다른各國의모기를年年히絶滅케하야임의모기線香界에斷然壓倒的인聲價를놉히고잇는次第이다要컨대모기잡는線香의製法은그러케큰問題가아이라製品의良否는專혀除虫菊의多少에依하야決定된다。

(D)
火持力과効力、衛生經濟는別問題
安住모기잡는線香의標語인『効力火持力이第一조다』란것을模倣한標語도잇스나불만이오래탄다고經濟的이라고할수업다잡는것은有効成分의除虫菊이少量으로서다른非衛生的(눈코에매운)不純分子가만히석겨잇슬時에는오래타드라도모기잡는目的은達할수업슴으로結局不經濟的이요또非衛生的이란것이된다

(E)
再言하면 人畜無害의모기잡는線香의有効成分은除虫菊뿐이다除虫菊업시有効成分은잇슬수업슴으로廣告에迷惑치말고安住모기잡는線香과가치永年의信用과効力으로팔어온優良品을사시면가장有効또安全하다고確信하고잇다

工場側奸計를看破 罷業團側憤慨騷亂

工場構內서御用職工과對峙

鎭南浦日鑛罷業險惡

【鎭南浦支局電話】 귀보한바 진남포 일본광업제련회사(日本鑛業製鍊會社) 직공파업단 일천사백여명은 지구전을계속하야 공장뒤편에잇는『한모리』산(山)에모히여 결속을굿게하고 대책을연구중으로 십사일에도 헤어지지안코 십오일에도작업을시작하지안하야 하루에 수만원식생산하는 공장측에서는 하루만쉬어도 손해가여간만흔것이아님으로 갈팡질팡한태도를취하야 설유한이후에는 파업단측 대표와만나보고 공장으로모히면 요구조건을들어주마 고유인책을쥐하야 일천사백여명직공은 이말을듯고 공장안에모혓스나 공장측은 아모 해결책도 보이지안흠으로 직공들은다시 소란하야 대책을강구하고잇는바 공장측에 매수되엿다고보이는 작업부 직공백여명이공장에 들어가 일하려는눈치를보이자 전공부(電工部)직공사백명은그들을 습격하야 바야흐로 장밧이 어우러저 싸우려고할찰나에 경관에게 제어되여겨우충돌은면하엿스나 파업단측의태도는더욱더욱 강경해지고잇다 파업단은 공장측의 기만책에더욱 분개하야 결속을 굿게하고잇스므로 공장측에서 요구조건을들어주지안는한 그다지쉽사리해결되리라고는 보이지안는다

十年間勤續해도 賃金은單一圓也

製鍊部의職工七百名만은 最後까지싸운다고

【罷業團側談】 일본의 굉장한 순리익을보는 회사에서 넘어나직공들의 대우가한심합니다 십년이상이나 근속한 사람이 겨우 일원내외의 임금을주며 연긔가 지독하여륵마염이나 폐병에걸려 임의죽은사람도적지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련부(製鍊部)직공칠백여명은 최후까지 싸울작정입니다운운

職工側要求엔 一顧餘地업다

製鐵所長 兒玉氏談

우리회사는 다른곳보다 임금도 본래부터 후하게 주어왓기때문에 그이상더 인상할수는 절대업고 다른 조건도 전부고려할바업습니다 몃사람의 충동으로 그리된모양이니 래일부터는 전부취업하리라고봅니다운운

朴勝彬氏의 『朝鮮語學』 出版記念開催

이번박승빈(朴勝彬)씨가 반생의 심혈을기우려 연구를거듭한결과 조선어학(朝鮮語學)을 출판함에 제하야 다소라도 그의노고를위로코저 오는 십팔일오후 여섯시에 시내돈의동 명월관(明月館)에서간단한 축하회를모되이다는바 회비는 일원으로당일지참하면조타한다 그런데 발기인 씨명은 다음과갓다

發起人(無順) 尹致昊 宋鎭禹 金性洙 方應謨 金用茂 呂運亨 朴漢永 李相協 [illegible]東植 金仁湜

梨花女專主催 秋期三大會 期日을發表

시외리화녀자전문학교(梨花女子專門學校)에서는 동교의년중행사인 다음의삼종대회를래신학기중에일제히개회하기로결정되엿다한다

▲第一回全朝鮮女子中等學校音樂大會(十一月二十一日)

▲第一回全朝鮮女子中等學校朝鮮語 英語雄辯大會(十一月廿二日)

▲第一回全朝鮮女子中等學校籠球大會(十一月廿三日)

臨津江增水로 自動車一部不通

경기도경찰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이삼일계속하여 내린비로 임진강(臨津江)물이 불어서 전곡(全谷)적성(積城)마전(麻田)간의 자동차도로는 두절되엿다한다

本報愛讀者慰安會 最終日도大滿員

空前의盛況裡에終幕

본사신축락성긔념 독자위안회의 회제최야 십사일밤은 마지막날인만큼 넓은대강당에도 립추의 여지가업시 관중이 모혀옥에기수와연사들을 명출동안에 익숙된기술로 재청삼청을 바뜨기며 연주를 계속하야 밤열한시경대성황리에 무사히마지막밤을 마추엇다 (사진은당야대면)

培花女高寄宿舍에 腸窒扶斯가發生

三名이發生하야 卽時入院治療

大消毒後一齊히服藥

귀호가장마때에들어 경성부내외에는 위생당국이방역에온갓노력을다하고잇슴에불고하고 장질부사(腸窒扶斯)와적리(赤痢)『파라지부스』등의전염병은 한업시만연하야 삼십만시민의건강을위협하고잇는이때 십삼일오후부내필운동(弼雲洞)배화녀자고등보통학교(培花女高)긔숙사에서긔숙생중삼년생주서균(朱瑞均)(一七)과일년생 김종희(金鍾喜)(一三)장봉순(一七)세명이 장질부사의진단을밧고『세부란스』병원에 입원케되야 학교당국과 소관경찰서위생계에서는 대경실색하야 곳 긔숙사전부를대소독하는일방 긔숙생일백삼십여명의대변을검사하고 장질부사내복약을긔숙생에게전부복용케하야 또다시환자가나지안토록 만전을긔하고잇다 이학교에는고등보통학교생도가 일백오십여명 부속보통학교생도가 사백오십여명이 잇는만큼금후에 더발생되지나안흘가가 염려되는데 전염된원인은 학교당국자의말에의하면이학교에는지금교실을수선하고잇는중이곳에 오는인부를통하야 병균이전염된것이아닌가하고말한다 그리고학교는여전히수업중이라고한다

傳染系統은 氷菓子와生實果

특히음식물을조심도록 家庭의注意할條項

방역(防疫)당국에서는 방역주간(防疫週間)을설하고경성부민에게 위생지식을보급식혀 경성으로하여금 건강도시를 맨들려고온갓노력을 계속하고잇는반면에 부내외에는 매일장질부사와 적리만도이십여명식 발생하야 순화원(順化院)은물론 시내에잇는큰병원에는 전염병환자로대만원이되는현상이다 그러면 이전염병은 어떠한계통을밟어 전염되는가하야 경성부에서 방금순화원에 수용된환자륙십칠명에 대하야 조사한바에의하면 다음과가튼데 그중어름과자를먹고 발병한사람이 아홉명으로제일위를점령하고잇다

一、어름과자를먹고 병난이 九

一、조선떡과과일을먹고 병난이 六

一、찬물을먹고 병난이 七

一、병자를 간호하다걸린이 六

一、파실먹고병난이 七

이와가티 어름과자와 파실등을먹고 병난사람이 만흠으로 경찰부에서는 어름과자장사를 철저히 단속하야 사탕(砂糖)물을 잘끌리게하야 긔구를끗거운물로 소독하게하는동시에 파실상도단속하야 썩거나서른것은 팔지못하도록 관하에 시달하엿다한다 참고로십오일하로만의 장질부사와 적리병자의 발생통계를보면다음과갓다

本町署管內 赤利三 腸窒扶斯五

鍾路署管內 一 一

東大門署管內 一 三

西大門署管內 一 一

龍山署管內 一 一

注射하던가 服藥하라

荻野課長談

이에대하야 적야(荻野)경성부위생과장은 다음과가티말하얏다

어린애들이만히 걸리는데 그것은원인이『아이스케익』에만습니다 요전에『아이스케익』을하나 검사해보앗드니청계천(淸溪川)개천물보다도매균(黴菌)이더만흔것을발견하고몸서리를첫습니다 예방제는 주사제(注射劑)와 내복제(內服劑)의두가지가잇는데 주사제는사람에딸아서는발열(發熱)하는사람도잇스니 내복약이편할터이지요 어쨋든각가정에서 주의를만이색이고 날것 찬것 꼿과실등을 어린이에게 먹지말고예방약을쓰도록하는게조켓습니다

安東稅關監視員 殺人罪로取調方針

夜半密行船追擊投江打殺

新義警察、檢事局緊張

【新義州】 안동세관의 감시원이 그취체의 정도를지나 밀수선을전복, 인명을살상하는 비인도적행동을 감행하야 별항의물의를이르키고 잇는이때, 지난십이일밤 안동세관의 감시원으로부터 압록강의상류 사마동(四馬洞)압 강상에서 다섯명이타고잇는 밀수선한척을 추격하야 이를 전복식히고 물속에 함몰한 다섯명의사람이 살길을찻노라고 허위허위거리는것을 따라다니며 몽둥이로 때려죽엿다는 듯기만하야도 몸서리를칠 참혹무도한행동을한사건이 또다시발생되여 국경지대에일대센세이숀을 이르키고잇다 사건은지난 십이일밤열시 신의주운정(雲井町)거주 김리건(金利鍵)등 다섯명은 안동측강안으로부터 분하동(分下洞)을향하야건너오든중 안동세관감시선 진양(鎭洋) 진해(鎭海) 진광(鎭[illegible]) 해성(海城)의네척은 『스피ー드』로 질풍가티배를모라신의주측 사마동강상에서밀수선과마조첫다 밀수선에서는 밀수품을 물속에 던지매 감시선은 드되어밀수선을 전복식혀 그배에 탄사람들을 모다물속으로 차넛코 물에 빠진사람들이 전복된 배밋을잡고 나오려하는것을 감시선의선원들은 각각몽둥이로 때려 한명을 죽엿스며 한명은동상을식혓다 물에빠젓든사람들의 주소씨명은 다음과갓다

▲新義州雲井町 金利鍵(三七)死亡 ▲義州郡光城面麻田洞 金伯仲(三一)董龍 ▲同所李時顯(三七)겨우救命 ▲同所崔熙哲(二七)겨우救命 ▲同所洪永雲(三一)겨우救命

그런데안동세관의 감시선이그 권한범위를 지나처 조선측까지 밀수선을 추격하야 인명을살상하얏다는 참혹한사실에 대하야 신의주의부민은 분격하고잇는바 사건의경과는별항과갓거니와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죽엿다는 것은 확실히살인죄를 구성하는사건으로 신의주경찰서에서도 그대로둘수업다하야 지난 십이일밤 경비선을 출동하야 물에빠진사람의 시체를 수색한결과 전긔김리건의시체를 건지고, 배의전복현장을 검증한후, 십삼일밤 압록강철교우에서 시체를 도립의원에 보내어, 해부케한결과 구타로인하야 사망한것이 확실하야 신의주경찰서에서는 이를살인죄로취급케되엿다한다

漢江岸의變死 昨日中三件

한명은물에빠지어자살 二名은不意에慘死

【京南】 장마를재촉하는비가 오락가락하는 작십사일하로밤동안에한강연엽해서만 세생명을앗엇다 십사일오후네시경 한강인도교세삼례이랑엽헤 새로착흔 축석(築石)우에서는 나이불과이십오륙세가량박게되어보이지안는 젊은청년하나이 검은양복저고리와 힌바지를입은채 물로뛰여내려서 자살을 하엿는데 이를본 소룡환(小龍丸)의 주인 김우봉(金又奉)이가 즉시모터뽀드로 달려갓든바 그는아래로떠려지며 두팔이 강바닥압석에 부다치여 붉은 피만흘으고 잇고는 시체는 아직건지지안허서 신원조차 모르고잇다

▲또이날 오전열시 이십분가량 한강상류인 서빙고(西氷庫)압강에서는 시외리태원 진흥회장(振興會長)이길송행차(吉松幸次)(三〇)가 자긔가경영하는채석장(採石場)에서작업중에작업을마재한류를 띄여밀다가 실족을 하야 외편다리를갈리고 즉시 룡산철도병원에서 응급수당을밧다가 오후여섯시에 죽고마럿다

▲또 오후여섯시가량 한강아래동리 시흥군 북면본동리(始興郡北面本洞里) 사백오십일번지 리병현(李秉鉉)의 장녀 리명복이란 열두살먹은 소녀가 그이웃에잇는 일본산소회사(日本酸素會社)엽개천에서 빨내를하고집으로돌아가다가 실족하야어던데에 떠러저서무참히도절명하엿다한다

城大出身모인 駱山醫學會

경성제국대학의학부(京城帝大醫學部)를 졸업한 조선인소장의사 백여명을모아 새로히 조직된락산의학회(駱山醫學會)에서는 이번에 사무소는 부외신당리(新堂里)삼백오십일번지의 삼십이호에 두고 압흐로 민중보건과 대중위생에대하야 의사로서의 천직을 다하고자 게획을세우고 착착 사업진행에 노력중인바 동회위원 명주완(明柱完) 정근양(鄭槿陽) 리부현(李富鉉) 김성진(金晟鎭)씨등 사씨가 십오일에 본사를 방문하얏다

天氣豫報

曇勝雨模樣

低氣壓은 咸北近海와 日本海北部에잇고 또 黃河下流에도 弱한 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서 本州에擴大되며 黃海側의氣壓配置는 아직不安定하다 昨日은 滿洲、朝鮮一帶에 降雨가잇섯스나 今朝는 處處에降雨가잇스나 一般으로 흐리다

昨日最高 二七、八

同 最低 二一、四

今日正午 二六、八

赤書籍의受難!

差押햇든二千餘部 平壤署에서燒却

【平壤】 옛날에는 진시황(秦始皇)、최근에는 독일의『나치스』가 분서(焚書)를 한사실이잇거니와 이번 평양에서는 평양서에서 분서를 하엿다 동서에서는 차압한 신문、잡지、서적등이 산뎜이가티 싸혀 보관의곤난을 늣기게되여 십사일오후한시부터 이것을처분하기로되여서 신문이백관은 팔고 서적은 뒤뜰에서 불살러버렷다 이가운데에는 적색주의서적이대부분으로 이천여부에달햇고 차압흐로 저보기힘들서적도마구혓다 일만수천권의서적도 이모양으로 재가되여 공중에로 사라지게되엿다

運動競技欄

東京留學生蹴球俱樂部 明日、京城發海州에

東京留學生蹴球俱樂部一行은 昨十四日午前七時四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入京하야 太平通 泰三旅館에 滯留中인바 一行은今十五日午後五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擧行될歡迎戰에出場한後 今夜八時부터 朝鮮館에서열리는 朝鮮蹴球協會主催의 歡迎會에臨하엿다가 明朝京城을떠나 海州로向할터이라한다

◇今後의日程

▲十六日午前十時卅分 京城發

▲同日午後三時四十分 海州着

▲十七日午後 對全海州戰

▲十八日 安岳着

▲二十日午後五時 對安岳戰

▲二十一日 平壤着

▲二十二日 對平壤戰

서울保健體操團 諸事業案決議

서울보건체조단에서는 지난十三日午後八時半부터 百合園에서同團幹事會를열고 다음의諸項을決議하엿다한다

一、京城府를中心으로夏期保健體操講習會及實行會開催의件

二、第十四回市民保健體操講習會는秋期에 必히開催의件

三、保健體操及에努力한團員表彰의件

四、朝鮮體育會에加入의件

五、每月一次式月例會開催의件

留學生蹴球團 歡迎會開催 今夕朝鮮館서

朝鮮蹴球協會에서는 東京留學生蹴球俱樂部一行을마지하야 今十五日午後八時부터 瑞麟洞朝鮮館에서 親睦歡迎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 會費는一圓이요多數來參하기를바란다고한다

普專籠球部 海州서練習開始

【海州】 普專籠球部一行十名은 十三日午後九時 海州驛着車로 當地體育界關係者出迎裡에到着하야 南本町朝鮮旅館에投宿하고 압흐로 二週日間을 海州高普코ー트에서 練習을行할터이라한다

朝拳靑暑練習 廿五日부터二週間

朝鮮拳鬪俱樂部에서는 世界拳鬪界의 [illegible] 來廿五日부터 八月十日까지約二週間 暑中練習을行할터이라는데 部員은無論이요 一般의多數出席하기를바란다고한다

◇練習時間

▲晝間 自午後四時至六時

▲夜間 自午後七時至九時

甲子園中等野球

西朝鮮豫選對陣決定

【平壤】 大朝主催全日本中等學校野球大會西朝鮮豫選은 二十二日부터三日間公設『그라운드』에서開催케되엿는데 平壤高普、光城高普、平壤中學、平壤商業、鎭南浦商工、海州高普、沙里院農業、新義州商業等八校로抽籤의結果는다음과갓다

——第一日——

▲沙農——平高普(午前九時부터)

▲平商——新商(午前十一時부터)

▲光成高普——鎭商(午後二時)

▲平中——海州高普(午後四時半)

——第二日——

一回戰終了後再抽籤決定

對大邱蹴球戰 留學生軍一敗

【大邱】 東京留學生蹴球團對全大邱의歡迎蹴球戰은 十三日午後四時부터 大邱公設運動場에서 金棟根氏審判아래 全大邱킥오프로開戰되여 七分만에留學生軍첫골을너허氣勢를올리드니 前半에 二對一로留學生軍리ー드하엿다가 後半에드러가 全大邱軍漸次로猛威를發揮하야 一擧四골을獲得하니 結局五對二로 留學生軍時運

(全大邱) [illegible]

LW LI CF RI RW LH CH RH LB RB GK

(留學生) [illegible]

不利하야 第一戰에敗하엿다 이날觀衆은 無慮三千餘名에達하야 盛況을이루엇다

全大邱 5 (1—2 4—0) 2 留學生

떼歐洲존決勝 獨逸이優勝

四對一、체코敗

【倫敦十四日發】 떼비쓰歐洲존決勝戰 獨逸對체코슬로바키아戰은 第三日單式試合은 다음의스코어로 獨逸이 四勝一敗로優勝하야 歐洲존의覇者로서『인터ー존』에 米國과對時케되엿다

폰그람(獨) 6 5 3 6 6 — 1 7 6 4 2 멘즐(체)

헨켈(獨) 6 6 7 2 — 1 4 5 6 자스가(체)

運動界人事

▲孫基禎、柳長春兩君은 來廿日에名古屋서열리는 東西陸上對抗에出場코저 十四日밤 京城驛發名古屋에

仁川暴風雨로 海陸에騷亂

【仁川支局電話】 십사일오전한시부터 네시까지의 사이에인천근해에 폭풍이불어서 목선세척이전부파괴되고 세척이절반식파괴되얏스며 화물(貨物)다수가 침수되야 합계 이천삼백구십오원의손해를 보앗는데 배는서산군대호지면 두산리(瑞山郡大湖芝面杜山里) 권재원(權在元)(三)과동리바대사(朴大士)(四)와 동군입동면 대황리 배재근(裵在根)(三)의 소유선척이라하며 이와동시에 인천세관선(高隊決警)이 끈허저서 소방대의 출동까지 보엇스나 변전소에서『스위치』를 끈허서 곳수리는 하얏스나 이까닭에 인천전시가는한시간동안 암흑세계가 되얏섯스며 삼정물산(三井物産)압거리에잇는『포플라』나무도수가 쎄이나뿌리채뽑혓다

半島에霖雨期

湖南地方에도降雨

조선에 본격적 장마가걸어왓다 황하(黃河)유역에 발생하여가지고 조선의 북부국경을 횡단한저기압과 동시에 원산(元山)압바다에 생겨난 부저기압(副低氣壓)으로인하야 만주와조선은 비가오게되는것이요 따러서 장마가지게되엿다 그리하자 가믈끄테 비를고대하든 호남지방(湖南地方)에도 전주(全州)에 십오미리가 왓고 목포에도오기는왓스나 일미리밧게는 아니되어 아직도 가믈은 해소되지아니하엿다 기타지방으로 상당한 비가오는곳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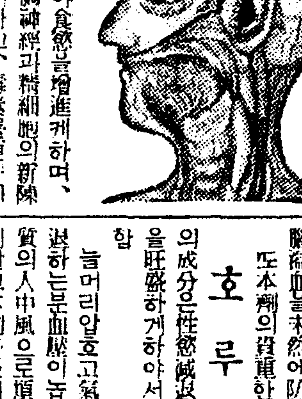
▲利川三一▲長湍八二▲廣州五七▲金浦三〇▲揚平三八▲龍仁五五▲豊德九五▲開城一四二▲漣川八四▲汶山五三▲水原五九

四十歲以上이된즉웨 血壓이놉고、精力이衰退하는가

四十年부터初老期에들어가면身體를構成하는細胞의活動이鈍하야新陳代謝가衰退하는同時에 술담배의害、淋毒、梅毒其他의病原菌毒素가體內에蓄積하야、그가血液中에吸收됨으로血液이濁해하야납버진다。

더러운血液이

逆上한즉頭痛頭重、眩氣、耳鳴、눈치침、肩凝이되고或은全身의血管을硬化식혀서動脈硬化、高血壓이되야혀가굿게되고手足의麻痺와不隨症을나려내고特히一步前進한즉무서운腦溢血中風이突發한다。또그러한症狀의人은호루몬分泌도衰弱하여짐으로、性慾이減退한다。이第一조호豫防과治療法은攝取



靜으로有名한今津佛理博이完成한腦服用하는데限한다。本劑는胃腸을튼튼히하야食慾을增進케하며、疲勞衰弱한腦神經과精細胞의新陳代謝를旺盛히하고、毒素를驅除하야서腦의不快한症狀을조케한다。

同時에血液의淨化器官인腎臟肝臟의障害를除去하야서、溷濁한血液을淨化하고動脈硬化의原因을除去함으로、血液循環도조와지고、血壓이내림으로中風을治療하고、腦溢血을未然에防止함

호 루 몬

또本劑의貴重한細胞活動素即의成分은性慾減退를恢復하고精力을旺盛하게하야서心身共히活潑히함

늙어리압흐고氣分안나고性慾減退하는분血壓이놉고腦溢血卒倒할質의人中風으로頹廢하는人은迷惑치말고本劑를服用하야빨이恢復하시라

全國藥店에잇슴 二百錠一圓五〇 五百錠三圓五〇、千錠六圓五〇

大阪市大仁本町三今津化學研究所에申込하시면說明書無代進呈

이 깁븜을同病者에

三年前부터身心過勞로頭痛不眠疲勞感에苦痛하야食慾업고體重十一貫까지減少하며조곰만한運動에도心悸亢進을늣기고、血壓도一九〇미리까지昂進하야視力도衰退하야、本年二月부터리기신을먹기始作하엿더니(中略)食慾도增進되고、體重도增加되며不眠疲勞感이全혀解消되야性的發動을늣기며血壓도三〇미리降下하엿다。나는기리신에依하야心身共히爽快한것을 늣겨謝하고、新聞客에도그實蹟을說明하고잇슴니다 東京市富田爲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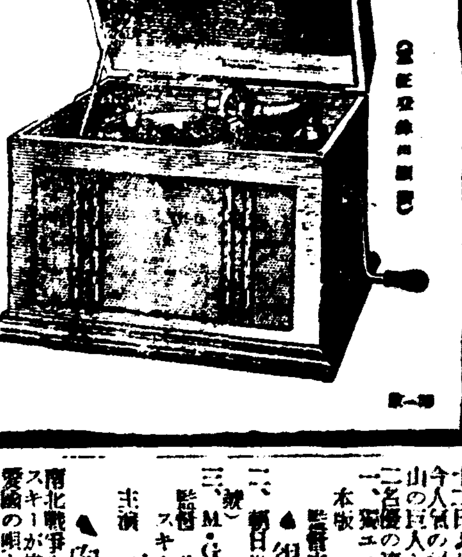
治療師

醫師同等待遇밧는 治療師가되려면

萬藥이無效한病도自然太陽光線療法으로完治합니다。本療法의治療師가되려면醫院에서면저實習研究하시요。每月五名에限하야實習을許함詳細한것은書面으로照會하시요。

太陽光線學會京城治療院

京城苑南洞二四〇(昌慶苑通黃橋下東西側春駒食堂橫入)



談笑의中心

和樂한 家庭에는 언제나 빅타ー蓄音器가 談笑의中心이되여잇다

J一의三五型은 단지三十五圓으로 一家의老若여러분이 함께질기실수잇는 經濟的娛樂品이다。

빅타ー蓄音器

J一의三五 · 金三十五圓

重症用 독 毒掃丸 숙 환

梅毒 에는學問上의理論과臨床上의實驗에依하야된沃素療法으로!!

重症用毒掃丸은許容最大限度의沃素를根幹으로한最新製劑요。初期梅毒、慢性梅毒、潛伏梅毒、先天梅毒、冷毒、小兒胎毒、痲毒性皮膚病、同神經痛、同루마치스、橫痃、疳瘡、惡性여드름、動脈硬化、甲狀腺腫、胃潰瘍

藥價 重症用毒掃丸 二週五圓、十圓、廿圓、卅圓 普通用五十錢、一圓、小兒用卅錢、五十錢、一圓

東京神田花房町 株式會社山崎帝國堂(振替東京一四六七番)

類似齒磨中의最高峰 專賣特許의 半煉の仁丹齒磨

百萬의愛用家에 總奉仕

答案는懸賞界의레코ー드突破

記錄破りの大懸賞

大賞品 秩父銘仙夜具、金側時計、錦紗訪問服、미싱、腕時計、세도、銘仙、洋傘、佛蘭西人形其他

應募紙 半煉仁丹齒磨에는中丸及紙箱을外函…外面…包紙2

浪花館 洋劃專門

今十二日より大公開 山の巨人トレンカ現代劇の好漢ゲーパー二名優の凉味萬斛二名篇の競映!!

本版 監督主演 ルイス、トレンカ ▲銀嶺に歸れ

朝日世界ニユース(第五十四號)

三、M · G · M · 超特作 日本版 監督 リチヤード・ボレスラ스キー 主演 ゲイリー・クーパ マリオン・デヴイス ▲砲煙と薔薇

南北戰爭を背景に巨匠ボレスラヴスキーが描く砲煙の中に燃き渡るクーパの激しき單服姿!!名花デヴイスの間諜十三號の名演技!!

中野信二、峯絲路 主演 一夜の刹那 大河傳實

七月十五日より特別公開 鬼才 … 原作

橫山文彦、大山デブ子、橘喜久子共演

ウイリアム・フオツクス特作日本版 コナンドイルの名作探偵小說より ウイリアム・ケハワード監督作品 クライド・ブルツク主演映畫 シヤロツク ホルムス

ミリアム・ジヨーダン アーネスト・タレンス レジナルド・オウエン 共演

大都映畫超特作任俠時代劇 海江田讓二本年第二回特作 監督 石山稔 原作脚色 星大男

海江田讓二、月宮乙女主演 鞘太ツペ流轉笠 共演 東龍子、澤田敬之介、橫山文彦、千代田綾子、郡健太郎、戀ゆえにやくざ

本町 大正館

七月十六日낫부터晝間만 正午十二時 三時半 無料入場場內整理附 階上廿錢均一

◇松竹키네마特作을싸운드版 監督 池田義信 歡樂의밤은 지더온다 主演 東島すみ子、岡田嘉子、川崎弘子、小櫻葉子、藤野秀夫、齋藤達雄 坂本武、吉川滿子、大日方傳 助演

◇파라마운트社特作 구라랜스 밧자ー 監督

三 週 間 주라라보우 主演

十六日부터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二

劇團 朝鮮研究劇舍公演 第二週레퍼ー토리

金健 作 漁村哀話 서색시 全三幕

金虹丘 作 喜劇 上京第一步 全一幕

◇七月十四日낫부터特別大公開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開 大衆料金!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十六日은特別晝間이잇슴니다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愛慾情史 クレオパトラ 全十二卷

◇新興키네마社超特作現代劇 監督 … 川手二郎 主演 … 金澤美那子孃 아버지를차저 全八卷

監督 … 셀 · B · 데밀 氏力作品 主演 … 클레오벳트 … 골벨 孃

次週七月十七日부터 -尖端腳化粧戶並長八郞 · 義情若人 外 寶 寫 全一卷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龍 三三

茶山先生 逝後百年祭

—特 輯—(一)

우리文化의大河流

•現代에빗나는偉業•

茶山先生의大經綸
朝鮮建設의總計畫者
지금도後輩가依據할朝鮮의太陽

安在鴻

오늘十六日은 朝鮮學術史上 太陽가튼存在이신 故茶山丁若鏞先生의 誕日이오 先生이 英宗三十八年 壬午에나서서 憲宗二年丙申에 卒하섯스니 今年은마치 그가신지百年이된다 先生이 至大한『經國濟民』의 念願으로 社會의再建과 民生無爵한 生存의大權을 確立하려든 空前한大經綸은 凡庸險邪한 時流俗輩에게 沮害되고譴謫되어失意落魄한 가운데에 一生을마첫스나 가신지百年을 記念하게되는해에잇서서 그新舊兩曆의 偶然한결합이한달을압으로 또가튼 十六日의合致를 보여줌도 새삼스러히 奇異欣賀의 느김을 일으키게한다 朝鮮現下特殊文化建設工作을 苦心詮議하는 지음에잇서 이朝鮮諸學의 集大成을한 茶山先生의 經綸과抱負를再吟味하고 新認識하고 아울러이를 天下讀者에게 闡明提揚하는것은 다만所謂繼往開來하는 尋常一片의 일로서가아니오 實은當面한途程에서 그 自然과歷史에 뿌리가튼 源泉을밧은 文化의 河川을疏通以浚하는 뜻기픈實踐工作으로되는것이다 生新한 檢討와 攝取의途程에서는 온갖의 歷史的因素가 모다現代에서 되살어나는것이다

—(筆 者)—

先生의 學과識은 人世文化의 各般에 뻐첫스니 그範圍는天文 地理 歷史 政治 經濟 法制 農政 土木 交通 機器 哲學 醫學 博物 考證 詩文等 各部門에미처 어느게나 모다 專門家的 精緻을 가젓섯다 그抱負는 舊邦에다가 革新한建設을 이룩하는것이오 그念願은 弊制弊政의미테 流離困苦하는 凋殘한 民生을 經濟上으로 解放匡救하자함이오 激甚한國際風雲의속에 富潤한人民, 强固한軍事組織으로 侵略을 물리치고 그生存의安固를 스스로 擁護하자함이엇섯다 그는天文을알고 地球를알고 宇內萬邦을 알엇섯는지라 長城以南에 位한者 반드시 中

中 華國될 自然地理上의 條件이업슴을 喝破하엿고 列立한諸國에서 朝鮮이一自立國家임을 잘 認識하엿고 그『原牧』을써서 國家發達의 社會史的經路는 民本的이오또民主的인 合理의 社會되어야할것을 痛論하야『루이쓰·모-간』의『古代社會』보담압서서 平等에돌아갈 社會의未來를 暗示하엿고『에밀·루소』와한가지『人間不平等의 起源』과『强者의權利』와『隷屬된奴隷』를彈劾하엿고黃宗羲의『明夷待訪錄』과 伯仲하야 立憲的인 政治經綸을 세웟든것이다 그는基督敎의

博 愛思想을 깃버하엿고民國艱困의 社會的情況을 目睹體驗한지라『通塞議』를일으키어 南北東西의 地方과黨派와 班常과嫡庶의 局見과 差別을 打破하고 全國全民의 總力量으로써 平等과互助하는 新時代의 創造를計劃하엿다

×

經濟의改造로써 産業的民主主義를 實現하고 富의生産및그分配를 公平히하야 民衆의生活을 安固케하는데 그『澤國利民』의理想이 잇섯고 그로써政治建設의 土臺를삼엇스니 田論七篇은 井田、均田、限田의 非實踐的임을指摘하야田十結에 一結을가지 公田으로하고『閭民』과의自治下에 共同耕作으로써 十一의收稅은

國 家에公納하야 그稅를代하되 무릇工、商、士等特殊技術者以外에 農民은반드시 農할수잇고 또因하야 生活安定될策을 樹立하엿스며 農法의單一과疏漏가 그富를다할수업슴새『農策』과『農政疏』에는『便農、厚農、上農』의 諸法을改陳하야 農法改良과 水利、農具와 優良種의擇生的 作成으로부터 播植의 微細에서는 現代正條植에 該當한者를 立案하엿고 山林、園藝(果、漆、竹、楮等)와 畜蠶牧畜으로 其他諸般에 빠치어 國家로부터 模範實踐의 多角農法의 實行案을 構成하엿고 遂安金鑛의 實例에보아 金、銀、銅、鐵의 國營採掘과 鑛鑛의私採制와 金銀銅等大小錢幣의 制를確立함으로 外國貿易의便法을 講하엿고 全國의稅를 田土에만集中한

誤 謬와不法을 指摘하고 軍布法의紊亂과 細民의寃抑을 痛論하야 軍布를革罷(後日三政亂의原因)하고 九賦의法을닥거 關市 船舶 漁場 鹽田 果林等으로부터 새잡이로 指導獎勵하는 各種産業의 新財源에서 新稅를베풀어 負擔을均等하고 人民의치役으로 貴賤을通하야 國家에同一히 貢獻할것으로 條列하엿고 社會의制를 刷新하야 年一歉衣準의 利殖으로春放秋納과 貴糶賤糴로 凶年救荒의 社會政策과 軍國非常輔急의 儲備로 할것을 立論하엿고 米穀의偏在와 獨占이社會의用과 大衆의生活에 病됨을力說하야 社會의制와한가지『船舶策』과『漕運策』을세우고 轉害를 剔抉하야 度量衡의

基 準과 그의 官造頒布와 隨時檢査의策으로 公私의 平準을꾀하엿고 그의貿易交通의 때문에 船舶漕運의外에 道路車馬를가추어 論하엿다 이모든條件의때문에各部門의『議、策、論、疏』等이 잇슬뿐아니라 그를集成 會通한者로는『經世遺表』가잇고『牧民心書』가 잇는것이다

× ×

天下의情勢와 人民의 動態를 精察明施함때문에 戶籍의整理 完成이 한順序이라 戶籍과 鄕吏의 明詳必成의 案이잇고 鄕吏의 世襲이 代替無常한 牧民官의 弊害를타서 弊政의淵源이되고民瘼의藪인지라 鄕吏의弊를 定하고世襲의制를廢할것과 隱結의 刷新으로 財政改革의 一要目을 삼엇섯고 牧民官의 考績法을嚴明케하며

人 材選擧의法을 고치어 貴

人民富蘇國家自强
平等互助를理想
西歐正統經濟學的政策과가치
임이民主主義者의이데올로기를가저

[illegible]에、[illegible]하고 文武科를 改革하야 各地方에서 人材推薦 實地選拔의 法을 마련하고 [illegible]의 職掌한 [illegible]이 오즉[illegible]의 [illegible]로마됨을 [illegible]하야 그制度의 矯正을 策하고 科擧의法이 人物敗困의 [illegible]을 說하야 그의漸進的 [illegible]을 論하엿스며 京城數十里의안과 [illegible]의田地는 모다 三軍과牙兵의 耕作地를삼어 [illegible]와其他로써 軍兵을 [illegible]함으로써 國防을嚴히하고 [illegible]할것을 不易의法으로 [illegible]하엿고 城、池、關、防의築營과 兵器、[illegible]의 改造와 兵船、車戰의 新制를세우고 [illegible]의留學으로 西洋[illegible]工藝의 新法을 時急輸入할것을 力主하엿스니 [illegible] 李民秀에게는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한바잇고 [illegible] 兵制策 工藝論等은 각각그一篇인者이오『經世遺表』와『[illegible]考』와『民堡議』等이그 集成한者이다『欽欽新書』는 司法과 [illegible]의 指針으로『麻科會通』이 染病救濟의 法으로 모다濟國濟民의 至意에나옴이오 敎育의普及과 朝鮮自立의 [illegible]文化의 [illegible]力하엿고 그[illegible]의[illegible]은 朝鮮的인[illegible] [illegible]立의때문에도 [illegible]力하엿고 [illegible]考하고 山水[illegible]한[illegible] [illegible]元 [illegible]一府도뒤人전에 [illegible]어젓[illegible]며 [illegible]史를 考[illegible]하야 [illegible]、詩、[illegible]를 [illegible] [illegible]文[illegible]도 三[illegible]를 [illegible]것갓고 [illegible]法을 [illegible]한에는 그本[illegible]의 集成者인 [illegible]成 [illegible]도完[illegible]가업는듯이 그[illegible]이들어낫다 그러나 이는그

大 [illegible]인者오 [illegible]의 [illegible]인것이다 그는노[illegible]서 天地의 [illegible]를 때러하고 커서天下人民을 再[illegible]하려하엿고 자세하기로는 [illegible] [illegible]永의法과 [illegible]의 [illegible]까지 立案한者이다

× ×

[illegible]軒 洪大容이『[illegible]山問答』을쓰고[illegible]下[illegible]을 述하여人民富蘇와 國家自强과 平等互助의 理想을 부첫스나 [illegible]에 그첫고 [illegible]의 [illegible]와 그의該博한 見識과[illegible]의志가 [illegible]으로써 [illegible]할지나 그會通綜合에는 留意치 안햇든者이오 [illegible]家가 서로 더부러『[illegible]方』을完成하고『北學議』를 著한바잇스나 그會通綜合은 업섯든者이며 安順菴[illegible]의 史와 李重煥의 人文地理가 또一二部門에

專 한者이며 申旅菴 景濬의 天文曆算과 [illegible]、[illegible]과 [illegible]博物과 兵[illegible]에 [illegible]한 技倆과 念願을 부친바잇섯스나 스스로一旅菴先生인 地位를가진분이오 [illegible]의地[illegible]와 城池[illegible]가 또一科敎部에 精核한분이오 星湖李瀷이 特히 그『[illegible]錄』에서茶山諸學의 始初를 열은바이나 精明的[illegible]한 實踐施行의 案에서는 [illegible]力치 안한터이오 柳磻溪馨遠이 그『職官、任官、田制、兵制』의 學으로 陳[illegible]開拓한바잇스나 그初期의 [illegible]明으로써 빗나는事情인者이다。

이外에 李[illegible]命 崔遷川[illegible]吉 張谿谷維重 崔明谷錫鼎等諸氏 모다

部 門的으로[illegible]明한바잇섯스나 스스로이에 潛心反覆할거를도 업섯든것이로되 오즉先生은 拔萃의資로 諸家의 後에나서서 能히 그大成의局을 매즌것이다

大槪 先生의學은 周禮六官의 制를 祖述한바로되 [illegible]도古套에 泥한바는아니엇고 十三經의 秘義를 뒤저내여 그 理論의 根據를 구하엿스되 [illegible]的 經學에 局할번도아니하엿스며 朱子學이라던者에 잇서서 스스로 雄偉한大家이로되 그로써 唯一至上的인者로 삼어 그見識이 [illegible]制되이 업섯다 그는 泰西의學風을알어『實學是求』하는門戶를 노피엇고

基 督敎의 精神에 影響되어 人道의博愛의 新人的情熱을가젓다 그壬辰以來의 毁亡의자취에서『어찌忠臣志士의袖手傍觀할者이냐』?고 浩嘆한것은 宗國思想에서 一步를나아간 近世愛國家의 典型인것이오 그農政、錢政、等等의諸政策은『아담·스미드』以來의 漸次로發達된 西歐의 正統的經濟學派와 그步調가 가튼者이오 漕運貿易의 諸政策은 그의重國自衛的인 主張과아울러 近世資本的國民主義者의 風儀가 또렷하게 가춘者이오 그『社倉環上』과 其他救荒濟貧의 諸施設은 近代先進諸國의社會政策그대로이오 그의貧民의 時와 米[illegible]의 [illegible]에서

無 産小民을피눈물로同情하고『[illegible]田、平賦』의 [illegible]經綸에서는 分明한現代經濟的民主主義者의『이데올로기』그대로이니 그의萬民平等 共愛로서 堅固한 經濟와 政法의 土臺우에確然한 新國家를 建設하려든것은 참으로 偉하다 놀랍도다고 [illegible]할者이다 그는抽象論者가아니니 科學的批判과立案者이오 그는書齋派的 提案者가아니엇스니 或은漢江舟橋의制에 水原築城建築의役에 그技術을 實驗하엿고 或 地方의政廳에서혹政府[illegible]政의局에서그民政 刑政 敎政의實績을 優秀하게보엿고 다만文治만이 아니어서 將兵用兵의 材인것을 信服하게되엇다 그의文으로서의 具全한材와局이武에서

李 忠武舜臣을 想望케하는者잇스니 이는朝鮮史上의 至寶이오 吾人朝鮮人은 內外의 識者와함께 이분을記念하고景仰하고 또追隨할者이다 이제 그逝世百年의 記念과한가지고

裏面繼續

寄康津謫中

洪氏惠婉

[illegible]

命一[illegible]千里照[illegible](七年謫居七年)

次韻寄妻

美庸

[illegible]

[illegible] 그러나 先生이 [illegible] 不幸하여서、오히려 巨大한[illegible]을남기어『[illegible]』[illegible]을 부첫스니 朝鮮이不幸하[illegible]

新刊紹介

▲國華 七月號 京城府初音町二〇 齊英時報社發行 振替京城二四五〇番 定價二十五錢(和文)

▲朝鮮之水産 第一二二號 京城府長谷川町一一 朝鮮水産會發行 振替京城八二一八番 定價二十錢(和文)

▲時代像 七月號 京城府寬勳洞一三〇番 時代像社發行 振替京城一六五六七番 定價六錢

▲京城醫專 有隣 京城醫專有隣會發行 振替京城二二二二二番 定價五錢

▲男女中等學校入學試驗問題集 昭和十一年度準備版 京城府寬勳洞一三〇以文堂發行 振替京城一〇二七五番 附錄二冊 定價九十錢 送料十錢

▲新興佛敎新聞 第百八〇號 東京市豐島區雜司ケ谷町一의六 佛旅社發行 振替東京五三七〇〇一番 定價五十錢(和文)

茶山先生年譜【上】

英宗三十八年 壬午(西紀一七六二年)六月十六日 巳時 廣州郡草阜面馬峴里―今 楊州郡瓦阜面陵內里에서 誕生하다 이해 莊獻太子의變이 생기다 泰西에는 에밀·루쏘 民約論을 發表하엿다

◇ 同四十四年戊子 七歲。五言詩를지어 小山蔽大山。遠近地不同。의 句가잇슴

◇ 十歲前의 著述로『三眉集』이 잇서先輩들의 稱賞거리가 되엿다 三眉는 十歲以前의 先生의 雅號이다

◇ 四十六年庚寅 九歲 母夫人尹氏 喪을맛나서 尹氏는 孤山尹善道의後裔임

◇ 四十七年辛卯 十歲 經史之學을배우다、經史를보바터 著述한바 一年內에 그等身의量에 達함

◇ 五十年甲午 十三歲 杜詩를倣한演詩數百首를 짓다

◇ 五十二年丙申 十五歲 父親載遠다시出仕하심에 딸어 京城에住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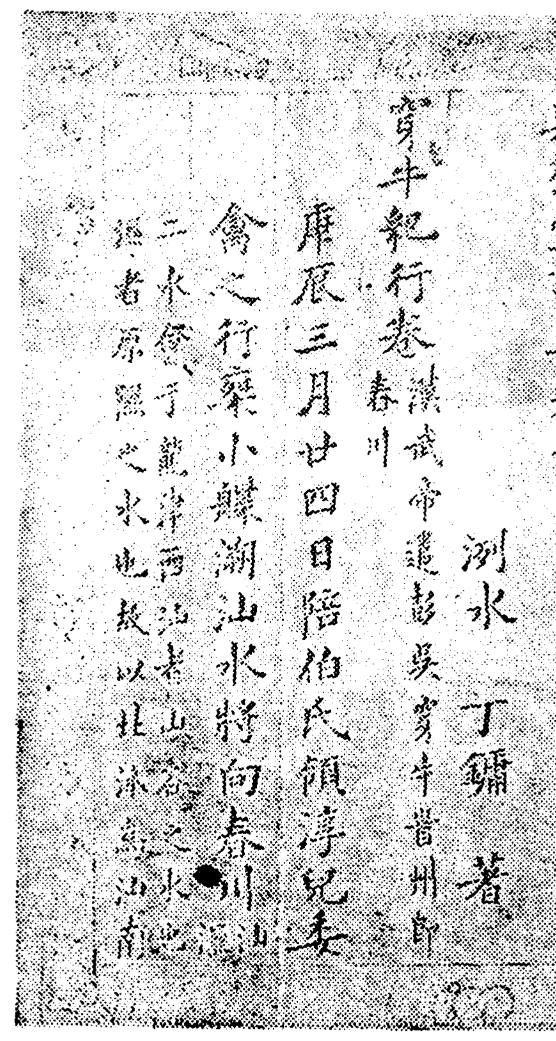
◇ 正祖元年丁酉 父親의任所를딸어和順에가다。以後六年壬寅 二十一歲까지 京、湖、嶺南各地에 父親을딸어 讀書觀物로써 하學을 거두지안함

◇ 七年癸卯二十二歲四月會試에 生員으로入格하다。宣政殿에謝恩할새 上께서特히 擧顔하라하시고 年齡을下問하심

◇ 八年甲辰 曠菴李檗에依하야西國學問의風을알다

◇ 十一年丁未 二十六歲重熙堂에 入侍하엿더니 正祖께서 承旨를 시키사『兵學通』을 下賜하시고그將才가잇슴을獎勸하시다

◇ 十三年己酉 二十八歲 舟橋의役이잇서 그規制를歸하다(이해殿試에及第)


(先生筆蹟)

與猶堂詩集卷之一

洌水 丁鏞 著

庚辰三月廿四日陪伯氏領[illegible]

茶山先生著書總目
全部四百九十一卷七十餘册

茶山先生著書總目

◇詩律集 六卷
◇論文集 六十卷
◇經世遺表 四十九卷
◇牧民心書 四十八卷
◇欽欽新書 三十卷
◇我邦備禦考 三十卷(未了)
◇我邦疆域考 十卷
◇典禮考 二卷
◇大東水經 四卷
◇小學珠串 三卷
◇雅言覺非 三卷
◇麻科會通 十二卷
◇醫零 一卷
◇文獻備考刊誤 一卷

以上二百五十九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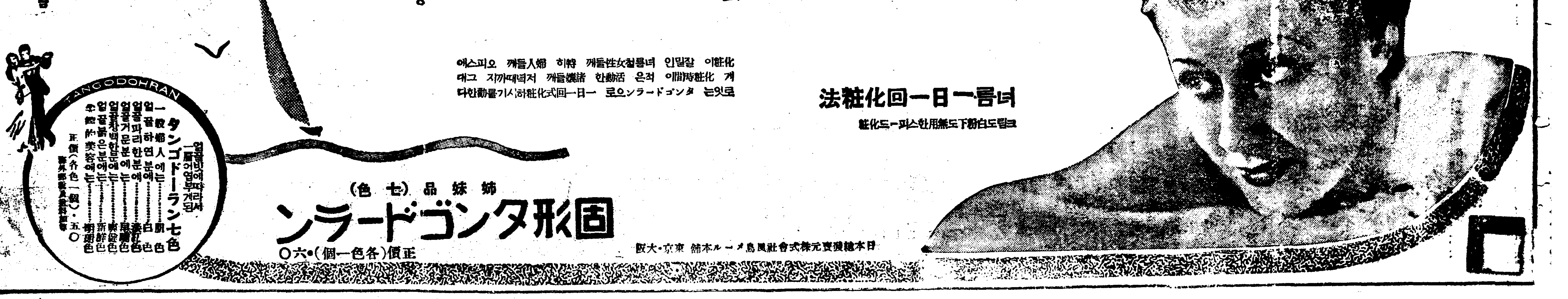
◇毛詩講義 十二卷
◇毛詩講義補 三卷
◇尙書古訓 廿一卷
◇梅氏尙書平 十卷
◇喪禮四箋 五十卷
◇喪禮外篇 十二卷
◇四禮家式 九卷
◇樂書孤存 十二卷
◇周易心箋 廿四卷
◇易學緒言 十二卷
◇春秋考徵 十二卷
◇論語古今注 四十卷
◇孟子要義 九卷
◇中庸自箴 三卷
◇中庸講義補 六卷
◇大學公議 三卷
◇大學講錄 一卷
◇小學補箋 一卷
◇心經密驗 一卷

以上共二百卌二卷

全部合計四百九十一卷 適宜合編하야 約一百五十卷 七十數册의 大著書이오 詩文中에도 先生獨特의 抱負經綸을 發表하야 他와判異를 달리한卓衡의大著作이다

茶山先生의古宅과幽宅

現在楊州郡陵內里에잇는 茶山先生의生於斯하신『與猶堂』古宅 뒤로山上에 先生의幽宅이잇다、漢江上流에잇서 乙丑洪水에全部流失되엇는데 當時先生의曾孫丁奎英氏 濁浪에몸을던저 先生遺稿를건지고一時氣絶하엿든눈물거운挿話가잇다



美와魅力의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內務省衛生試驗所無鉛證明

化粧이 잘밀인 녀름철女性들께 特히 婦人들께 오피스에
게 化粧時間이 적은 活動한 諸孃들께 저녁때까지 그대
로잇는 タンゴドーラン으로 一日一回式化粧하시기를勸한다

녀름一日一回化粧法

크림白粉下도無用한스피-드化粧

著名百貨店、藥房、洋品店、化粧品店에잇슴

TANGODOHRAN
タンゴドーラン七色
얼골빗에따라서 一層어엽부게됨니다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골하연분에……白色
얼골파리한분에……淡紅色
얼골거문분에는……黃色
얼골창백한분에는……健康色
얼골붉은분에는……新鮮色
舞臺的美容에는……照明色
正價(各色一個)•五〇

姉妹品(七色)
固形タンゴドーラン
正價(各色一個)•六〇

日本總發賣元株式會社鳳島メール本舖 東京・大阪

茶山先生百年祭特輯

土地國有論과 勸農政策六科
農政學上으로본茶山先生 【上】
李勳求

「우리는 自己의것을 잘잇는病에 걸이엇다는 말을 자조하게 되고 듯게된다」 또 우리는 우리의 先人들이 所謂『慕華病者』이엿엇다고 痛嘆하는 소리를 하고 듯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날에 잇서서 依然히『慕外病者』또는『慕他病者』노릇을 하고 잇는것을 깨닷지 못하는境遇가 만타 다시 말하면 自己의것을 自己가모르고 自己의祖先을 自己가 모르고 自己의 學問을 自己가 모르고잇는 境遇가 만흔것이다

茶山先生의 百年祭가 도라와 記念式典을擧行하여야 되겟다하는말을 드를때의 내의게는 形言할수업는 歡喜가心頭에 빗치엿다 그것은 勿論 頑學巨擘으로 一代의學界에 最高峰을 占據하엿던 茶山先生을 追慕하는 微衷의 發露도 發露어니와 또다른 反面에 잇서서인제는 우리도 우리의 前人을崇拜하며偉人을 追憶하여서自己의것을 求索하여보려고 하는 참다운 覺醒이 나고 眞正한 省察이 생기엿다는 點에도 이섯다 沙翁祭、杜翁祭 칸트祭 等等이 잇다고할적에 筆者에게는 懷疑와 感傷이 업지안이하엿던것이다 그것은 곳 우리가 우리의 沙翁과 杜翁을 내여버리여두고 爲他思想 또는拜外思想이 이런機會에 浸漸하여서 再次로『慕華病者然』한 愚를 演出치 안이할가 저어하엿던 까닭이엿다 여긔의 茶山先生百年祭야 말로 우리가 우리를 차저내는대에잇서서 一大劃時期의 意義를 가진것이다。

先生의著述은 經國濟民의 至言要道아님이 업는것은 勿論이어니와 名物度數로 百家技藝에 關한것일지라도 該博精通치 안이한것이 업다 더욱이 **文章과 經學**에 잇서서도 前人未到의 境地를 開拓하엿다 實로 先生은 經世의偉才로 稀罕한頑學이엿던것이다 不幸히도 그著書가 浩瀚되고 또 邪惡에 權權하여 不遇의逆境에 處하엿기 때문에 世上에 刊行된것이 몃몃가지가 되지못하는것이다。先生이下世한지 一世紀인오날에 與猶堂全集이 刊行되는것은 實로 先生의 遺澤이 다시하번 光輝를 볼수가잇다

를 나타내는것에 不過하거니와 우리學界에 큰貢獻이 잇슬것을確信하는바이다

農政學者로서의 先生은

實로 拔群超類의 識見을 가젓던것이다『經世遺表』(邦禮草本)와『牧民心書』와 및『欽欽新書』等著書를 通하여表現되는 先生의 農業政策은 學術이 未進하고 文獻이 稀貴하엿던 當時임을 想起할적에 非才淺識의 後學인우리무리로하여곰 啞然失色케하고 따라서 景慕鑽仰의 心情이 油然興起함을 禁할수업게하는것이다。實로 先生은 저 農政學의 學祖의稱을 듯는 獨逸의 폰꼴츠(Von Goltz)座右에 適出하는것

先生은農業政策上土地

問題가 根幹이 되는것을 맨처음에 看破하고 田制의 改題과 및 新制에 一段의 卓見을세웟다。 漢族田制史에 잇서서도 牛田稅를 爲始하야 漢唐明宋의 歷代田制에 深奧한硏究로써 그立論이 盲目的慕華論者인 韓百謙 柳恨等의 愚毫無言中에 道破하엿슴은 勿論이요 明의『農政全書』著者인 徐光啓의 所說에 比하여보아도 一般의 深刻性을 具體化하엿다 그러나先生은 時不利分로 그所信을 **麗末의 趙浚과가티 實行**치못하엿스니 千古의恨事가아닐까?

先生의生涯에 對해서는 엄이先輩諸氏의良好한敍述이 잇슬지라 나의贅言을기다리지안허도 모다잘알것으로밋는다。

先生의著述로는 與猶堂集七十八冊과 欽欽新書、牧民心書等이잇다。

先生의詩八冊을 通讀할적에 우리로하여금 늣기게하는것은 그 **表現技巧**야 그보담 優勝한이도 잇서겟지만 木手의物名이 만히排列되여 博하고도精한態度를보여주는것이요 一般漢文學者가 흘겨보지도안는土俗 鄕諺農歌가튼것을 만히採取하야 詩로읊은것이요 詩詞谷體(與猶堂集五冊)에 能한것이요 社會階級의 對立과 ××狀態와 社會矛盾의 正確한觀察이 잇는것을 본다 이를테면

★若雨歎示南皐(與集二冊)에『一斗之米從何出 使君立馬索祭穀、惰農敢欲偸安佚、傳呼婦子催出田 五步十步立苗一、使君回馬入府去』라하야『使君』의無理한勸農을責하고

★長鬐農歌(與集四冊)에는『麥嶺崎嶇似太行』이라하야 四月보리고개의 괴로움을말하고

★海南吏(與集五冊)에는『若非縮狱獄、定是逋先訓、催租吏出村亂打東南隣、新官今發職、程限不得踰、橋司萬斛船、正月離于郡、舟船必雖官、發乘在前州、咻咻百家哭、可以補補夫……』라。아 吏胥의苛歛과横暴를 豺狼과 오랑캐에比하야 한것이니 이는『龍城村舍』『民間謠』와 合讀하면 當時에 말할뿐 民間疾苦를 알수잇서『石壕吏』나『北征詩』(다杜甫作)을 읽는것가다 『人知…(與集六冊)에는『人知學樂 不識耳樂苦』라하야 유매니스므한點을 보이고잇다

漢醫學上으로본 茶山醫學의特色 【上】
趙憲泳

丁茶山先生이 經世家로서 學者로서 卓越한 醫書를가지고 그知識이博洽함이 政治、經濟、法律、天文、地理、文學、宗敎、農學、博物學等에 通達하얏스며 醫術도相當하엿다는것쯤은 大槪다아는바이다。 그러나 茶山先生이 漢醫學者로서 어떠한地位를占하고잇는가하는대 對해서는 仔細히알지못하는이가 만흘리라고 생각한다。

朝鮮의 漢醫學者를 찻는다면 筆者는 第一먼저 茶山先生을말하겟다。 이것은 決코 茶山先生이 장하다고 모다들 말하니까 덥허노코 **醫**學에도 茶山先生이 第一이라고 風聲鶴唳로 떠드는것이아니오 筆者의 見聞이 좁은탓인지는 모르나 事實에잇서서 茶山만큼한 漢醫學者가 업섯다 許浚의『東醫寶鑑』이잇고 康命吉의『濟衆新編』이잇고 李景華의『廣濟秘笈』이잇고 그外에『醫方活套』니 무슨經驗方이니 무슨治驗錄이니 무슨祕方이니하는것이 만히잇스나 거긔에 한가지도 **學**術的으로새로운學說과色다른意見을 發見할수업스며그때그때에 神醫라고떠들던 有名한 臨床醫家는 얼마던지잇지마는理論으로 前人의說을 더發展시킨이는 別로업스니 自己獨特한學者的立場을 가진 漢方醫家로는丁茶山先生(批判論、實驗論)과 李東武(四象論)李石谷(扶陽論)들을 먼저말할수밧게업다

茶山先生이 著述한醫書에『麻科會通』이 有名하고 흔하나 그것을 **評**하는것이專門的이되고 또너무길것스므로 여긔서는다만 그學者的特色을몃가지紹介하겟다

一、茶山先生의批判的態度

茶山이先哲의學說에 對하야批判的態度를 取햇다는것은우리가 깁히敬意를表하지안흘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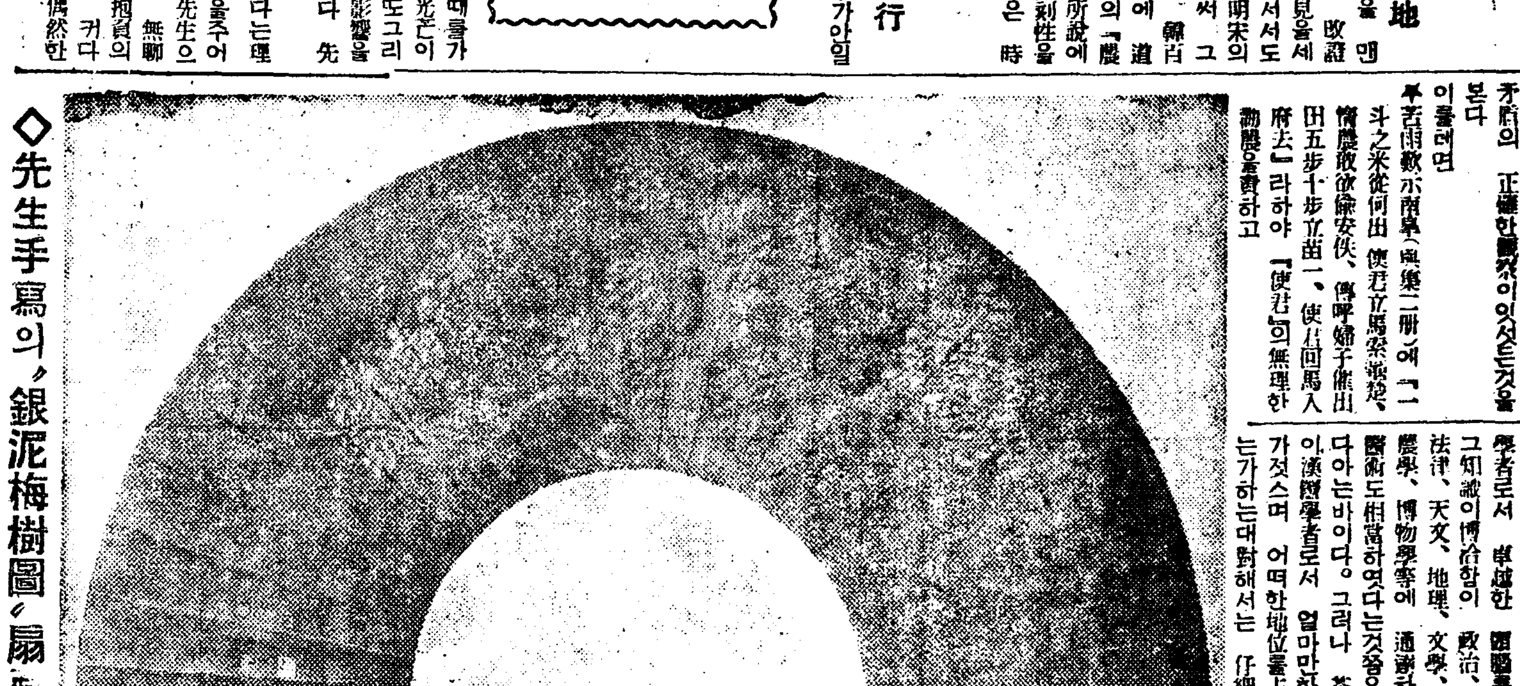
謹告

『檀君傳說의檢討、神話와民族神』이라題한金台俊氏의論文은 社의事情에依하야 中斷하옵기玆에謹告함

文化建設上으로본 丁茶山先生의業績 【上】
金台俊

◇◇◇◇茶山丁若鏞(1762—1836)先生의百年忌를마지하야 다시한번 先生의業績을 살펴봄도 에오래지 意義깁흔일이라고 생각한다 筆者◇◇◇◇

先生은英祖三十八年當時에政治的으로勢力을일은 沒落的兩班階級의家庭에 태여낫섯다。때는李朝末葉의小資本의蓄積、家內手工商業의分化、印刷術의發達에伴한圖書의便宜等이 **學者養成**의好條件을 養成하고잇는때에 一方으로는中國의實事求是學風의流入도 影響되여 芝峰 磻溪 星湖 順菴 旅菴等『現實學派』의諸學者의最後에나서 이를集大成한天깁을 주이는가 先生이다 그리하야 順菴 旅菴보담五十歲後요 燕岩보담廿五歲後 李德懋보담廿一歲後 朴齊家보담十二歲後 張混보담三歲後 申緯보담七歲前 金正喜보담十四歲前에 이분들과 때를가티하야 日月이交輝하야 光芒이 百代에흘으는것깁을준다 또그리고 先生의學問에 重大한影響을 준것은 天主學이아닐가한다 先生이 **天主學을** 밋는다는理由가 反對政黨에게 口實을주어 康津귀양십팔년에 도로혀先生으로서는 失意憂鬱한속에서 無聊한著述의餘業이 오날날그抱負의一端을 後學에게보여주어 커다란欽慕와贊仰의的이되도 偶然한일은 아닐것이다。



◇先生手寫의〃銀泥梅樹圖〃扇面◇

◇先生의自書인詩箋의一部◇

考證學上으로본丁茶山
文一平

朝鮮學界에 잇서서 偉大한存在인 茶山丁若鏞先生은 英祖三十八年壬午(一七六二)六月十六日에 廣州에서 誕生하야 憲宗二年丙申(一八三六)二月二十二日에 七十五歲의長齡으로 漢陽에서 卒하니 今年이꼭 百年이라 이學界偉人의 逝世한지 百年을 記念하는 意味에서 지금 記念號를 發刊할새 나는 未敢하나마 考證學上으로 본先生을 말하게 되엇다 그러나 먼저 한마듸 말하려는것은 先生은 學問이 該博하고도 精深함으로 그 門庭을 바라볼때 마치 舍衛城中에 드러간것가태여 **萬**般이 具備하지 안흔것이업스니 天文地理로부터 政治經濟와 法制醫學과그他土木 交通 機器 에이르기까지 일은바 百科를 包括하야 一家를 大成하엿다 이點에잇서서 先生은 健實히 古今을通하야 第一人이 될것이다 그러치만 先生의學問은 한갓該博 精深으로써 說明이 되는바아니요 그學問의 大宗旨가 어대잇는가를 먼저알어야 하겟다 그는 英祖正祖時代를 支配하든 實事求是의 學風의 最高峰을 일우엇이가 곳先生이니만치 先生學問의宗旨는 實事求是이다 先生이 일즉 爲學의宗旨를 **喝**破하엿스되『百姓日用에 無補하면 學이 아니다』라고까지하엿다 여기서先生爲學의 大本領이 어떠한가를볼것이니 先生의學은 民生日用의大實際에 堅確하게立脚하엿슴으로 그의考證도 文獻에 依據할뿐더러 實際生活에 비취여取捨進退를定하게되엇스니 이는 一般考證學者와는 判異한點인同時에 茶山先生의 偉大한經世家인點도 실로 여기엇다하겟다 그럼으로先生의 考證學은 世間의考證學과는 그根本精神에잇서서 이미 特殊하니만치 先生의 考證學을 말할때 먼저 이點에 留意함이잇서야 하겟다 先生의 하신 **諸**經傳考의 一例를 들진대 孟子의『熙熙皞皞』에 對하야 말하되 熙皞世界는 太平이나 安逸의世界를 云謂함이아니요 빗나고 발근世界 곳밤이낫가튼世界니 暗室中에 안저서도 罪를 젓지못한다는 意味로 解釋하엿다 이것이 얼마나 實際에 逼切한 學說이냐。또 論語의『寧武子之智』는 可及也로되 그愚는 不可及也라함에 對하야도 先生의 考證은 特異한바 잇서 그愚는 不可及也의 愚는 亂世에 處하야 어르석은체하고 保身함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라 어대까지正直하게 **勇**敢하게 나가는것을 말함이라고 하엿스며中庸의『索隱行怪』에 對해서도 隱한것만 찻고 怪한것만 行한다고하든 自來解說과는 달리하야 先生께서는 索隱이 卽素隱이니본대 숨어서 怪를行하는것은 君子는 하지안는다고 하엿다 書經의『璿璣玉衡』에 對해서도先生은 自來解釋인 渾天儀나 北斗七星等說을 否定하야 갈오되渾天儀나 北斗七星을 보고어찌써七政을 발우잡겟는가 璿璣玉衡은渾天儀나 北斗七星이 아니요 璿璣란 璣으로 맨든尺이며 **玉**衡이란 玉으로 맨든衡이니 卽王者가 먼저 度量衡을 均一하야써 七政을 발우잡는다고 말하엿다 이것이 先生의實際에立脚하야 經傳을 考證한 卓見에서 나온 新學說의 一例에不過하지마는 또한 先生의 精神所在를 엿봄에 足하다『我之不朽는 惟禮與易인저』하고 先生스스로 자랑하니만치 先生은 儒學에 中毒된 當時朝鮮을 건지려는 大願心에서 禮說과 易學의 考證에 만흔精力을 다하얏는대 아못조록 煩瑣한 禮說을 簡單히맨들고 深奧한易學을 平易히맨들어서儒敎國人의骨髓에사무친 **痼**疾을 根本的으로退治해 보려고하엿다 先生의考證은 儒敎의諸經傳考뿐이 아니라朝鮮歷史地理에 잇서서도 我邦疆域考 大東水經가튼 名著를 내여 오늘날까지 自我에對한 蒙然하든知識을 精確한대로 誘導하려고한것은 後世길이 學界의崇仰을 밧을만하다 我邦疆域考의 漢城考에 河南慰禮는 廣州요 慰禮는 오늘날 漢陽으로 말할것은 누구나 그 精確한 考證에 聳歎하는바이어니와 이러한實例를 들려고하면 限이 업겟슴으로여기서는省略한다 그리고 **先**生의文語考證의 一部로서 雅言覺非도 學界에 珍重하는바다。 一言으로하면 考證學이 先生의 全部가 아니요 겨우 그一部에 不過하나 先生은 考證學上에 잇서서도 거의 不朽의業績을 남겻다 하겟다

骨髓호루몬鐵製劑

네오부루도ー제錠
ネオブルトーゼ

世界的으로問題인 **肺結核治療**와 네오부루도ー제錠의可驚할偉效

大槪結核의發病은身體組織細胞의抵抗減弱에 由來하게된다 此의豫防並治療는當然細胞個個의 抵抗力增强에서 求치안흐면아니되겟슴으로 全身의營養을向上케하면足하다 骨髓호루몬骨質成分並鐵푸로탈빈의 三主要成分을有한네오부루도ー제의常用은此目的에合致하는最善의策이라하지안흐면아니된다即淸新豊潤한血의激增에依한營養狀態의改善은곳內臟諸器管의機能總動員이되고諸種免疫體의旺盛한生產活躍에依하야 菌體의撲滅과毒素의淸掃等이行케되는結果로서發熱、貧血、盜汗、疼痛、食思不振等이漸次驅逐되어 病竈의治療를促進한다 特히갈쉼及燐의 豊富한體內沈着에依하야咳嗽並病的滲出物은急速히激減하야遂히病竈의石灰化를促進하고連하야 完全治療에到達케된다또는恒常結核이隨伴하는神經衰弱이本劑獨特의 神經營養에依하야同時에解消하는것은 本疾患의經過에 甚大한效果를주는것이다 實로本劑는罹患部位의如何를不問하고左와 如히身體全般에亘하야 著大한好影響을與한다

(一) 食慾不振이업서지고榮養核의 基礎를成하고腸管粘膜의抵抗力增强에依하야可恐할腸結核을豫防하고結核性痔瘻의治療를急速히한다
(二) 初期結核肋膜炎等을早期에治癒케하며又中等度肺結核에잇서서도또한其輕快를促進한다
(三) 速히貧血이것치고心悸亢進盜汗等이自然消散한다
(四) 肺門又는頸部淋巴腺結核(瘰癧)의擴大를防止하고病變을局限하야根本的으로快癒케한다
(五) 精神神經系의過興奮性을鎭靜케하야不眠이거치고神經衰弱을豫防한다
(六) 皮下脂肪의增加와筋骨萎弱의恢復에依하야 體重이增加하고皮色이良好케된다特히骨質營養의結果로서骨及關節結核은顯著한好經過를보인다
(七) 結核治療에絶對必要한制慾은性器의過興奮性의鎭壓에依하야實行容易케되야精力消耗를防止한다
(八) 結核性眼疾患의모ー든거에亘하야顯著한好影響을與하야局所治療의治効를補助한다

適應症

貧血諸症・老衰防止・腺病質・神經系疾患・生殖機能障害・營養障碍・비타민缺乏症・結核諸疾患・骨骼發育障害・小兒發育期・外科手術前後・姙娠產褥期・重病恢復期

『生命의源泉』이란小冊子請求次第進呈

藥價低廉

錠劑	百八十錠入	一圓
	三百六十錠入	一圓八十錢
	千錠入	四圓五十錢
粉末	二五瓦入	七十五錢
	一〇〇瓦入	二圓七十錢
	五〇〇瓦入	十二圓

(一日量藥價約六錢)

血과肉과骨이된다

KNB—67

海西一帶暴風雨 交通網一時杜絕

【安岳】오래동안 가물어 애태우든 걱정되더니 지난구일부터 시름시름 나리든비가 오늘일간 계속하더니 지난십사일에는 폭우가나리기시작하야 사정업시 사오시간을 퍼부어 사리원, 재령간교통이 끈키어 긔차의련락이 안되고 신천안악간과 재령안악간은 자동차가 불통하게까지되엇는데 십사일오후까지 정긔우 개통된모양인데 물이 장장긴 장마때가되어서 조금식만이라도 비만오면 큰일이라고하며 근방일대의 농민은 마음을 죄이고잇다는바 장마가 더계속하야 비가더온다면 배수시설이 잘못된 안악부근에는 농작물에 막대한 손해를 면치못할것이라고한다

【載寧】황해도 재령지방에는 지난십삼일오후세시경부터 나리는비가 동오시경의 우량은 일백사십오미리에이르럿고 황해선 금산역(黃海線金山驛)과 재령역(載寧驛)간의 철도가 파괴되어 십사일조간신문은 약삼시간 연착되엿스며 일반농작물에는 대단한피해는 업는 모양이나 상금강우중으로 일반은우려하는중에 잇다

【沙里院】지난 십삼일밤부터 십사일아침까지 퍼붓듯오는비로인하야 황해선 재녕간(黃海線) 金山, 新換浦에 의하야 미물기가 넘쳐 도(勸業)에 흙이 넘어 긔차는 십사일오전중까지 불통되엇다

【白川】황해도 백천지방에는 지난십삼일오후구시부터 쏘다지기시작하여 십사일오전칠시까지 내린비가 이백팔미리(二〇八)에 이르럿는대 부근일대는 이해화하엿스나 농작물에는 피해가 별로 업고 기타인축사상이나 침수가옥은업다고한다

【開城】지난십삼일오후구시경부터 나린비는 십사일 오전상시까지 약여섯시간동안이나 폭우가쏘다지어 취적교(吹笛橋)가 유실되며 산이문어지고 길이 끈어저서 개성으로부터 경성(京城) 평양(平壤) 화장사(華藏寺) 박연(朴淵)으로가는 자동차는 전혀 불통하는상태에잇스며 특히 한강변의 길이끈어저서 한로에오신여명이 통행한 적이다하야 개풍군에서는 응급히 복구공사에 노력중이라한다

龍塘浦에서 本船一隻沈沒

【海州】지난십사일오후 해주군 룡당포(龍塘浦)에서 박대환(朴大煥)(三八)의 소유목선은 풍랑으로 인하야 그만침몰되얏다는데 손해는 백미(白米)오백석가마니와 잡화등 약 천원가량이라한다

工費三千圓으로 拳鬪俱樂部新築

【洪城】홍성읍내에는 지금것은 운동구락부가업서서 일반청년들이 유감으로 녁이든바 유지들의 발긔로 삼천원의 예산으로 건축중이든바 불원간 준공되리라는데 지방일반운동가에게는 손곱아 기다리고잇다하며 일반인사는 개인부담으로 후원하여 그에대한 환영이 놉다고한다

水電工事場에 短刀强盜橫行

【長津】장진군중남면하평리(長津中南面荷坪里) 수전취입(取入)공사장 성려호(成麗鎬)상점에는 지난구일밤에 단도를든강도한명이 나타나서 수제청고를 강탈하여 간는바 피해는 현금, 전표, 기타서류까지 사오백원이라하며 범인은아직까지 피체되지안어서 소관하경찰서에서는 방금엄중수사중이라고한다

三水郡下에 卵大雨雹 四時間을 繼續

【咸興】지난십삼일오후네시경부터 삼수군(三水郡)별동면(別東面)일대에는 계란만큼식한 우박(雹)이 쏘다지는데 방금결실중에잇든 연맥(燕麥)마령서등 농작물은 전멸상태에이르럿다고한다

臨時費十一萬圓中 六萬圓은 寄附로

平北道府尹郡守會에서 決定 具體化하는 女高問題

【新義州】평북녀자고등보통학교설치문제에대하야 정주(定州)와 선천(宣川)에서는 그위치를각각 자긔곳으로 하고저 운동이맹렬한데 평북도청에서는 그운동에 현혹되어업시 우선설치방법을연구중이라는데 지난십이일마침개최중인 평안북도부윤군수회의에서는 녀자고보설치를위하야 림시비 십일만원의 긔부모집을 의한결과 십일만원중 륙만원을 각부군에배정하고 오만원은설치되는지방에서 거듭부담하기로결정하엿다한다 그배정액의기준은 호별세와 이에비례하는 가옥세에의하야 안분하기로되엇는바 가장부담이 만흔곳은 선천 정주랑

鄭勳謨女史獨唱會 今月十九日元山에서 —本報元山支局後援—

【元山】원산악우회(樂友會)주최와 본보원산지국후원으로 래 십구일오후팔시반부터 시내원산관(元山舘)에서정훈모녀사독창회를 개최키로 되엿다 그런대정훈모녀사는 일즉이 동경제국음악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그곳동교에서 조교수로잇스며 그타고난 천재를 세상에 낫타내여 대갈채를밧다가 가사관계로 동교를 나온후에도 성악에대한 끈임업는 연구를하고 매년경성에서 정기로 독창회를열어 만도팬을 황홀케하야 조선제일류의 쏘프래노가수로서 자타가공인케되엿는데 금번원산악우회의 초청으로 원산에오게 된것이라는데 동씨의 반주는 금상첨화격으로 리화녀자전문학교 피아노교수인 박경호(朴慶浩)씨라고하며 동일 찬조출연으로는 리흥렬(李興烈)씨지휘 원산남성합창단원 이십여명이나오리라고하야발서부터 동일의성황을예과하기에 족하다고한다

桂貞植提琴演奏 高原서는十六日에

【高原】본보고원지국에서는 조선총유의 천재제금가 계정식(桂貞植)박사를 초빙하야 금월십륙일 오후팔시반부터 당지공립보통학교대강당에서 계정식박사제금연주회를 개최키로 되얏는데 교교수『알마·콜리』양이 반주하기로되여 이러케 세계적 음악가의 연주회가 우리고원에서 열리기는 이번이처음인만큼 벌서부터 일반의인끼는 동음악회로 총집중되야 그날의대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元山서도盛況

【元山】천재음악가 계정식박사의 제금연주회는 예정과가티지난 십삼일하오팔시반부터 원산루씨녀자고등보통학교강당에서본보원산지국장강기진(姜基鎭)씨사회로개최하엿는데 초목의더위와 때마츰 쏘다지는 호우입에도불구하고 청중은만당의성황을일우어 입추의여지가업는대성황을일운중 계박사의 그신긔미묘한 멜로듸는실로 청중을도취시켯스며 더욱이나 알마·콜리양의 그연마된 피아노반주에 황홀하야 청중은 극히정숙한가운데에 간간갈채에 넘치는 열광적박수소리만이공곡(空谷)을 울리는듯하엿다 십일시경 음악회가 끗난후원산사회 각계사십여유지로부터 계박사와 콜리양의 환영회를해동헌(海東軒)에서 개최하야 화긔만만리에 동십이시경에 폐회하엿는데 이번원산악우회(元山樂友會)와 원산남성합창단(元山男聲合唱團)에서는 계박사와 콜리양에게화환(花環)의진정이잇섯다

魔의水電工事場에서 又復二名慘死

【長津】장진강수전수로제일수항에서는 지난십일에 원적을신흥군동상면원풍리일구(新興郡東上面元豊里一區)에둔 리갑룡(李甲龍)(三〇)이가 『구라지오구』의일을하다가 감동자의 견부롭을무게하야찌녀 그자리에서 죽엇고 이사건이난지 삼일후인 십일일에는 강원도삼척군(江原道三陟郡)출생 홍순근(洪淳根)(二三)이란청년로동자가 굴속에서 배수펌푸를보다가 전긔에치워죽사하엿다고한다

竊盜橫行으로 平澤人心不安

【平澤】평택지방에는 작년봄이래 각상점의 벽을뚤코 침입하야 상품을 절취하는등 피해가 적지아니한바 지난륙월이십오일과 칠월오일의 량일밤을 거듭하야 당지 리수영(李壽永)씨방에서 침입하야 의복과 현유가등 시가백여원어치를 절취하엿고 지난달 삼십일밤 장택진포목점에 침입하야 수제금궤를 절취해가다가 기리오든기랑의 단도를노코갓고 그후 면직물상 리민희(李敏熙)씨방에서 침입하야 금시계를 절취하엿다는데 당지경찰은 사방으로엄탐중이나 범인의종적은 묘연하다는바 일반시민은 불안에 싸여잇다고한다

姑母謀殺悖女 十個月役言渡

【定州】정주군고안면송정동(高安面松亭洞) 임부성(任扶城)의 처최길녀(崔吉女)는 시어머니 승영도(承英道)와 항상사이가조치못하여 서로반목하여오든중 지난사월이십구일 시어머니의 음식에다가 다량의양잿물을 석거서 독살을꾀도하다가 발각되어 지난십일일 정주지청에서 징역십개월의 언도를바덧다한다

釜山地方에 染病猖獗

【釜山】부산부당국에서는 경찰당국과협력하야 전염병방지에대활동을하고잇스나 각종염병은창궐하야 지난십일일에는 적리환자(赤痢患者)십팔명중부로 현재부산 순치병원(順治病院)에입원한전염병회자만도 오십명이라하며 그내역은 적리환자십팔명 지부스이십사명 성홍열(猩紅熱) 오명 지푸테리수명이라한다

二百名代表連署 防波堤延長陳情

土砂流下로船舶妨害라고

【咸興】북청군청해면장호리(北靑郡靑海面長湖里) 주민대표안태진(安台鎭)외 일백칠십육명의련서로 십이일함남지사에게 대하야 방파제(防波堤)연장속조하여 달라는진정서를 제출하엿는데 그진정서의내용을보면 동리는 북청남대천(南大川)하류에잇는 동리로주민 이백여호 일천여명은 거금 약삼백여년전부터 순전히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든터인데삼변경부터 남대천 개수공사가시작되어 구변도에 이르러그하구(河口)가준설을고하게되자 상류에서 부터흘러내리는 토사가항내에차이게되어 유일한 생명선인항구는 점차매몰되어버리는동편입으로로 선박(船舶)출입을할수업게될을 통탄하고 정곤하여잇든 신창(新昌)항이 번창함에따라가 즁유비(油肥)공장이 장호리(長湖里)에설치되게될 현상으로잇는바 이런 모든점에잇서서 해면에도 사가불리하는 장호리방파제시장이아니할으로 방파제(防波堤)를 하구까지 연장하여달나는것이다

危險한高壓電線 不良個所四十六處

平南警察部에서嚴密檢査 —府에改良警告—

【平壤】평양부에서는 고압배전선의 단선(斷線)사고가 빈발하기때문에 평남경찰부에서는기술원을동원하여 검사한결과 불량공작물다수를 발견하고 대수리를하도록 평양서를 통하야평양부에경고를 발하엿다 불량공작물은 정전사고를일으키는외에 부민의 머리우에위험이심한 고압배전선이벌리어저잇슴으로 부에경고를 발하는외에 관하 각파출소에 통첩하여이상항을 엄중감독하기로 되엿는데 십삼일까지 발견경고한 불량전기공작물만도 사십륙개처의다수에달한다고한다

忠州엔겨우解渴

【忠州】지난십삼일부터 비가오기시작하엿스나 강우량이적어서마치홍노에 점설(點雪)은것밧게되지안허 일반인심은여전히흉흉하다

十五日(月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아버지를차저서 延星欽
◇同六時五五分 經濟ニュース 講演 生產增殖問題 朝鮮中央日報編輯次長 裵成龍
◇同八時 趣味講話 伏이야기 權惠奎
◇同八時二五分 農村振興歌募集當選發表 農村振興지침이—放送(其一) 農村振興歌 一、農村振興歌(一等當選)…元宵堂作詞 洪蘭坡作曲 二、同(二等當選)…林和作詞 李冕相作曲編曲 三、同(三等當選)…車鞴蕙作詞 伴奏 DK管絃團 講演—忠清北道淸州公會堂으로부터中繼—忠清北道參與官 安鍾哲 農村講座 忠淸北道農村振興委員會 鋼琴 朴八扮
◇同九時四〇分 레코―드音樂

十六日(火曜)

◇午後〇時五分 雜山歌外 一、時調 二、雜山歌 三、제비가 四、難逛歌 金錦花 伴奏 高敬德
◇同二時 家庭講座 生活改善에對하야 (一) 李蓮玉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二重奏 一、觀兵式行進曲…吉本光蔵作曲 二、同(…)…鄭東圓? 三、…
第一하―모니카 白惠圭 第二하―모니카 鄭東顕
◇同六時五五分 經典解說(一) 中央佛專學監 金敬注
◇七時三〇分 ニュース 天氣豫報
◇同八時〇分 趣味講話 伏이야기(二) 權惠奎
◇同八時三〇分 獨唱 一、歌劇『팔리아치』中에서 피아노伴奏 프롤로―그…레온카바로作曲 二、歌劇『탄호이저』中에서…빠그너作曲 저녁별의노래 三、歌劇『假面舞踏會』中에서…베르듸作曲 四、『椿姬』中에서 듀―마의歌… 五、『트로바토―레』中에서 사랑의마음 金文輔 金永煥 乾坤歌 金蕉紅 一、春眠曲 二、… 錦點紅 金永根
◇同九時 歌詞
◇同九時三〇分 映畵이야기 大李 李愚興

曆

七月十六日(火) 舊六月癸未(小)十六日 癸巳·水·箕·開
●祭祀에宜함
▲小暑 八日(舊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舊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舊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舊六月廿四日)

그女子의一生 【257】

春園 作 夕影 畫

그래서 금봉은 자긔자신에대하여서 일종의 반감을 이르키면서,

『좀 깨끗한 사람들을 골나서 돌려리를 세우지』

하고 목 조핫다。이 말은 옥남과 숙희를 따리는것과 가텃다。그러나 옥남은 못,

『목욕이나 정하고 속속드리새옷이나 갈아입고 가면 깨끗하지안어?』

하고 빙그레 웃는다。

금봉은 더욱 반항적으로,

『그것이나 깨끗하면 무어하오? 속이 깨끗해야지。피가 더럽고 혼이 더러운것이 목욕한다고깨끗해지겟수? 취형한 무명이진』

하고 입을 꽉 다물엇다。자긔가 나는 깨끗하다는하고 천지간에 우뚝 서서 뽐낼수잇던 날이 어제런듯하기도 하고 엇만겁전인듯 하기도 하엿다。

『그럼 금봉이 혼자서 돌려리를 셔지』

하고 숙희가 좀 분개한 어조로 쏘앗다。

『나도 깨끗하던 날은 다 이저버렷스니 말이요。세상에 그러케도 깨끗한 사람이 둘이낫느냐 말이오。』

『그리케 피까지 혼까지 깨끗한 사람을 골라서야 돌려리를세운다면 이 세상에서는 혼인은 영 못하게되것지。돌려리커녕주례할 목사도 어듸 고를수가잇다구。다 목욕이나 하고 새옷이나 갈아입으면 깨끗한게야』

하고 옥남은 흠은이모양으로 타일른다。

『임선생도 깨끗지못할까』

하고 금봉이가 화두를 돌린다。

『우리 오빠는 깨끗하려다』

하고 숙희가 옥남의 뜻의를 구하엿다。

『아직 총각이것만은 사실이것지』

하고 옥남은 학재의 도모지 건드려지지안허것을생각하며,

『아직 정결이것만은 사실일걸 그러니깐 금봉의 맘대로 피까지 깨끗한것만은 사실일겟서 혼까지는 알수업지마는。그러치만 금봉이 혼례는 적어도 혼만이라도 깨끗한걸。이 번에도 우리 오빠가아모리 혼인할 권해도 도모지 안듯더라니깐。혼인할 마음이 도모지 업노라고 하려라니깐。그게야깐드히식 사상도 사상이겟지마는 알마해도 생각하는 여자가잇는 표여등 만일 학재씨가 생각하고잇는여자가 잇다고 하면 그게야 금봉이밧게 다른 사람이 잇을리야 엇나? 안그래숙희?』

하고 숙희를 바라본다。

『아이 언니도 웨 금봉이 마음 피로우라고 자꾸그런 소릴 허우? 페니 금봉이헌테를 와다。』

하고 숙희가 화를 내인다。

『그럼、임선생허구 영자언니허구 서로 사랑해서 혼인하는것은 아니오?』

하고 금봉은、알고는시프면서도 참아 뭇지는못하던말이 옥남의 입으로 저절로 알려진것이 깃벗다。

『몰르지。웬걸 연애를 햇슬라구。우리 오빠 중매로 되것지 안그래 숙희?』

『그럼、우리오빠、그 돌부처님이 연애가 무슨 연애야。옥남언니오빠가 자꾸 권하시니깐、또 어머니두 자꾸만 혼인을 하라고 졸르시니깐 그런게지。금봉이허구 영자언니허구 비기면 언니허구 연애못한 사람이 영자언니허구 연애하겟소? 금봉이야말로 봉황이허구 닭인데』

하는 숙희의말은 사실도 사실이지마는 낙담하는 금봉을 위로하라는 뜻이 다분으로 품겨진것도 사실이엇다。숙희는 금봉에게 대하야 동성연애라고 할만한 애정을 가젓던이인 만큼 학재의 혼인설을 듯는 금봉의 심경이 무척 가엽섯다。

『그래두 영자언니는 임선생을 사랑하길래』

하고 금봉은 말을 하다가 그것이 부질업슴을 깨닷고 뚝 끈허버린다。

금봉은 마츰내 학재와 영자의 혼인에 돌려리를 허락하고 옥남과 숙희를 저녁을 먹여서 돌려보내엇다。

학재의 혼인날인 음력 시월삼일은 양력 십일월보름이엇다。금년철치고는 아마 마즈막으로 따뜻한 날。벌레소리까지도 더러 긔어나오는 놉이 잇는 따뜻한 날 금봉은 하얀 하부다이로 나려갈고 오후 두시 정각의 누이 혼인식장인 정동예배당으로 갓다。한다하는 양반새집이오 부자시집 따님의 혼인날이라고 례배당에는 손님이 그득 모이고 머리에 젖지 부틴 궁 부인들도 보엿다。

파진은 곳 금봉을 알아보고 은근하게 인사하고는 자긔의 가족석으로 안내하엿다。

紙袋製造를 副業又는本業으로

百圓前後의資本으로 月百圓以上돈버는 紙袋製造의專屬 製造者急募集

… 案內書無代進呈 …

大阪市西區本田一ノ二
合名會社 千代田商事本店
電話西(七二)一九一番 二九八番
支店 名古屋市中區東田町四ノ一九番

皮膚病良藥 피부병양약 데―무水

皮膚病에는 단하나뿐인 テーム水

從來의皮膚病藥은 化粧水와大同小異하야 効力이 薄하며 使用함에 不便한끈적거리는 膏藥用도잇고 또쓰리기만하야 効果가잇는듯하나疑心스러운것이만엇스나、旣往의皮膚藥의 不滿足과 缺陷을補充한것이 皮膚病良藥テーム水올시다 テーム水가左記皮膚諸症에對하야 適藥인것은 이미世上의定評잇소 때는正히 皮膚病跳梁期、이尤甚한때 皮膚病良藥テーム水의 常用을 推獎합니다

●땀띄 ●음부습진 ●무좀 ●옴 ●태독 ●부스럼 ●진물은데 ●가려운데 ●부릉 ●헌어루러기 ●버짐 ●疥癬 ●白癬 ●피풍 ●여드름 ●죽은깨 ●농가증 ●肛門●진물은데 ●옷올너데 ●버물 ●모기、깔다귀、빈대毒虫의刺傷皮膚에 使用하고 쓰리지안코 압푸지안코 눈에안띄고 냄새업시 用法이簡單하며 效力이 낫소

テーム水藥價(卄錢、卅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슴

●頭痛에 ノーシン 効果는期待以上! 더구나 胃腸이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七月十二日부터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七時卅分

映畵鑑賞은團成社에서! 언제든지第一級的映畵封切

◆M、G、M超特作日本版 리차―드、쁘레스라뷔스키監督 砲煙과薔薇 게―리쿠―퍼 짠、파―카 마리온、떼뷔스 主演 藝術의精巧와重厚、名優의熱演 劇的興趣와迫力、M、G、M社最近力作의하나

◆유니버살獨逸作品日本版 原作、監督、主演―루이스트렌카― 銀嶺으로가거라 鄕土讚歌의珠玉篇、알프스와、키―高原의모습、겨울詩歌의主題가뒤돌잇는山岳美

◆外國産映畵一篇 問題의大傑作쇼팡의 離別의曲 ―(次週부터)― 그리는 첫사랑

模倣의人生、驚異의超特傑 ―次次週封切―

全鮮第一 映畵殿堂 團成社 電光 丸九

七月十五日부터超特別大興行 『晝夜三回』 유社超特別大作發聲音響混成版 에도가와이스바로―作의映畵化! 猛虎다―산 全三十卷中前半十六卷上映 巨匠헝리마크래―氏大作 豪勇호랑그매리―루―氏 助演 로다―산의活躍을描破한다―산映畵의本格的完璧篇 大都映畵新社特作現代劇 吉野擬氏監修作品 佐久間妙子 串差おでん 中篇 大熱演 伴淳三郎 黑田文郎 그날의憂心 次週封切豫告! 七月二十五日부터 猛虎다―산 後半十四卷上映 完結 乞期待!

寶鏡洞 電光 三三 優美館

읽어라!

朝鮮文으로쓴 婦人病自宅治療法 無代進呈

—內容(내용)—

◇부인병의원인과치료법
◇대하증의원인과치료법
◇월경때의조섭과주의
◇상습두통과현괴증
◇히스테리―와신경쇠약
◇녀자의림질치료법
◇녀자의매독치료법
◇임신을판단하는법
◇임신전후의조섭법
◇처녀시대에걸리기쉬운부인병의종유와치료법
◇자궁위치이상증(子宮位置異常症)에대하야
◇압풍이심한부인병종유
◇아해를엇재서못배게되는가
◇부부화합에재미를몰으는것은어떠한원인인가
◇그외에가정위생에대한중요기사와사진이 만재되야잇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든 녀성이라도 다년간 가정생활의 고초를격고 수차자녀생산을 거듭하는 동안에 몸은 점점허약하여가며 복잡한녀자의 몸조직으로부터 여러가지 부인병이 차츰차츰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어떠한 병이든지 그시초에는 누구나 등한히 하기쉬운거가려 부인병에잇서서는 깨닷지못할만큼 처음에는 병증세와 경과가 미약함으로 만약 부인병에대하야 다소간의 예비지식이 업스면 부지중에 병세가 중하게되어 참다못하여 말하게된 그날에는 벌서 병근이 깁고 병독이 전신에 퍼젓슴으로 단시일에 전쾌될것이 오래 끌게되며 심하면 생명까지 밧치게되는 수가 만습니다 그럼으로 부인 자신은 물론이오 남편 또는 집안사람들까지 부인병에대한 위생지식을 알으시여서 미전에 예방과 정당한 조섭을 하게하여야 될것입니다 대체로 녀성의 체질은 선천적으로 섬약한데다가 녀성만이 알수잇는 고통과 번민 혹은 성교와 해산등으로 말미아마 부인병에 걸리기 쉬웁게되여잇습니다 또한 순진한 녀성의 미덕으로 모든 고통을 입밧게 내지안는것이 조선녀성의 특증임으로 발병한때이라도 꽉 참거나 또는 녀자면 누구나 이런 병이 잇거니 하고 자긔 혼자 쓸아린 세월을 보내시는 분이 얼마나 만습니까? 또한 처녀시대면 집안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며 출가하신분은 가정살님에 골몰하시거나 말못할 사정으로 참고 참어 와서는 드듸여 부인병은 중하게되어서 여러가지 비참한 불상사를 일으키게되나니 한심하기 비할데업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잇서서 부인병 치료약으로 만흔 칭찬을 밧고잇는 『명지모』와 『오기나구』의 本舖에서는 특히 조선부인의 건강과 위생보급을 위하야 모든 가정의원의 임무를 담당하라고 여기에 조선 국문으로 자세히 부인 일생의 위생지식 서류를 발행하야 어떠한 부인병이라도 집에서 손쉬웁게 고칠수잇는 방법을 三千里江山 어느 가정에도 한권식 희생적으로 보내는바이오니 본보 독자라 하시고 누구시든지 어느분에게도 거저 드립니다

東京市京橋區入舟町
命の母 ラギナ球 本舖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最近國際間短資

◎…移動經路一瞥

倫敦이 保有하고잇는 短期在外金融(英蘭銀行의 金塊準備及爲替平衡勘定이 有하는 外貨保有高를 除外)을 推測하는바의 在倫敦短期債務는 英植民地及 其他英帝國內地域의 貨幣準備로 이것이 最近 顯著히 增加하얏다 그러고 이貨幣準備가 非常히 多額에 達하게되면 倫敦에對한長期債務를 하는 安全策이 엇을수잇슴으로 安心할것이다 即 英貨諸國은그 增加한 準備로 長期債를 償還하다 이方法으로 印度는一九三二年에 千五百萬磅의 債務를 辨濟하얏다 南阿聯邦은 一九三四年에 七百五十萬磅의 債務를 償還하얏다 一面 그와는 反對로 長期債務를 增加하야 在倫敦短期資金을 增加한곳도 잇는바 諾威가 그러하다 英國은 金輸出禁止後 外債發行을 不許하는 方針을 取하고 잇섯스나 昨年七月 英貨圈內의 國家에 對하야서는 自國安定資金을 調達키爲하야 거의 長期債發行을 許하게되고 諾威는 이方法으로 二百萬磅의 長期債를發行하야 諾威銀行의 磅資金을 擴大하얏다

×

一九三一年 英國의 金本位離脫後 短期債務의 [illegible]이어섯다 英國은 그에對하야 長期債權을 保有하고 잇섯스나 債權者와 債務者가 다 [illegible] 長期債權을 保有하고잇슴에 不拘하고 短期債務의 全面的回收에 依하야 [illegible] 危險은 적어 [illegible] 佛國은 一九三一年과는 全然 다르다 佛蘭西及瑞西의 短期債務가 今年에드러 金本位의 不安으로 顯著히 減少한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一九三四年中은 거의 變化가 업다

×

最後로 墺地利及 獨逸의 「据置協定」에 依한 短期債務의 變化를 보자 墺太利는 昨年初에 [illegible] 經濟情勢에 顯著한好轉을 보게하얏다 이것이 短期債務上에 [illegible] 「据置協定」에 依한 債務의 大部分을 辨濟하고 남은部分도 [illegible] 「据置協定」은 업서지고 [illegible] 短期外債로 되엇다

獨逸은 [illegible] 一九三四年末에는 二十億마르크로 減少하얏고 그中 使用되고잇는것은 十七億마르크에 不過하다 그中 昨年中에 가장 만히 減少한것은 外國으로 다음表와 갓다(單位百萬마르크)

用途別(据置協定)	一九三四年二月	同十二月	比較減
英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瑞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和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蘭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이와가튼 減少는 債權者가 多少의 損失을 覺悟하고 旅行者에게 판지스터마르크를 [illegible] 依하다 勿論 獨逸의 境遇는 淸算協定에依한 債務가 增加하고잇슴으로 據太利와 比較할수는 업다 [illegible] 短期債務의 減少만으로 [illegible] 以上을 要約하면 英貨圈의 短期資金增加와 米國의 減少 及 短期債務의 使用에 잇서서 墺太利의 顯著한 減少가 一九三四年中의 顯著한 움직임이엇는것을 알수잇다 그러고 이事實은 前四國의 短期資金中 第四의 種類가 減少하고 第一의 貿易信用及 第二의 貨幣準備로 國際的資本가 漸次增加하고잇는것을 示하고잇서 時代要素를 떠나 國際的資本의 方面으로만 觀察하면 世界의 通貨混亂은 漸次 安定하야가고잇다고 하야도 無妨하지안을가한다(終)

慈雨苦待 兩湖農家에서

—山澤農産課長談—

이번 降雨는 京城以北에서 曾豐이며 오래동안 旱魃이 繼續되는湖南線附近은 依然비가 아니와서 用水紛爭이 連日 不絕하는狀態인데 十四日午前六時로부터 同十二時까지의各地雨量을 보면(粍)

▲新義州四六 ▲中江鎭四〇 ▲雄基三五 ▲城津四五 ▲元山一〇〇 ▲平壤三三 ▲仁川二七 ▲京城二二 ▲釜山二 ▲木浦四

이에對하야 總督府山澤農産課長은 다음과 가티 말한다

×

每日曇天이 繼續됨으로 이번에는 湖南線附近도 相當히 降雨가 잇슬줄로 알엇는데 依然旱魃이 繼續되야 매우 憂慮된다 忠南、忠北、全北보다는 全南이 醉甚하야 農民은 每日 慈雨를 바라고잇다고한다 그래서 數日前 農産課에서는 數名의 技術員을 派遣하야 旱魃狀況을 調査中인데 그結果를 보지안코는 詳細한것을 알수업스나 이狀態로 經過하면 今年米作의減收는 免하기가어려우리라고 豫想된다

繼續의旱魃로 用水紛爭不絕!

幾日만無降雨이면米作減收

總督府調査員急派

西朝鮮은順調

雨量이充分하다

西鮮地方을 視察하고 京城에 도라온 三井榮長氏는 다음과 가티말한다

西朝鮮地方一帶는 移秧初期에天候不順으로 生育이 조치못하야直播도 苗板도 打擊을 바더外觀이 不良하야荒蕪의 觀이잇다 그러나 多幸히 時期가 빨랏음때문에 그뒤의 天候恢復과 降雨로 回復되야 目下 比較的順調로되어가고잇다 그러고 雨量은 充分함으로 今後의日氣만 順調로되면 全體的으로 作況은 큰影響이 업슬것이다

米供給不足顯著

精米所는原料購入이極難

◇…品貴市勢가展開

忠南、全南의雨量不足과 日本內地 關西地方과北九州地方의水害를除하고는 大體로 好順氣로서 豊作豫想이나 米價는正米實際事情이 低落을不許하야 新高價로 暴騰을거듭하야 端境期의 需給窮屈難免豫想下에 五十萬石拂下決定에도不拘코 休日을지난 十五日은 米價의擾勢를 演하얏다 即期米는 後場에大阪先限三十圓九十三錢 仁川先限二十九圓이란 新高價이엇스며 期米高를 追伴하야各地正米市場은 鎭南浦六十錢暴騰을비롯하야 京仁各四十錢高、大邱三十錢高等强調이엇는데 政府米追加拂下는 그數量의僅少로 逆行高이며前途需給窮屈觀濃厚에조차 産地側의賣惜이 益甚한만큼精米所는 原料에困難을맛는程度의 品貴市勢展開이다

京城市中十五日午後二時現在各精米所의 韓白米(한가마니)의 小賣市勢를알아보면 如左하다

中林洞日出精米所		一四、四〇
竹添町漢城	同	一四、四〇
蓬萊町京城	同	一四、四〇
黃金町三共	同	一四、二〇
麻浦洞德昌	同	一四、二五

一般消費者 生活을威脅

米價高로自然減俸

昨年이맘때韓白米市勢한가마니에 十二圓이엇스니一年동안二圓四十錢의暴騰으로서一般消費層의生活費가 더 어렵게되어 苦痛을맛고잇스며 特히俸給生活者는事實上減俸을 當한셈으로 다른物價上昇과 緩和되지안 을지經濟的으로 米價高暴騰惡影響이 되리라한다

比律賓의 綿布輸入

阻止對策協議

【電通大阪電話】 紡績聯合會에서는 十三日綿業會館에 特別委員會를열고 比島에서의 日本綿布輸入阻止에 關하야 對策을協議하고 綿布同業會委員과 聯合協議會를開催하고 當業者의態度에對하야 具體的對策을 講究하기로되엿는데 紡聯輸出商側의意向은

一、米國側이要求하는一九三一二年의對比島 綿布輸出高의平均四千萬平方米(五千萬平方碼)로輸出을制限함에는絕對로承認키어렵다

二、따라日本綿布輸出組合을設立하고輸出統制를 實施하야可及的輸出의自制를 行함도不得已하다

는意見으로 輸出統制에依하야比島의關稅引上을 阻止하고比島向日米輸出綿布의協調를圖하려는것이다

大藏省의銀行 減配一段落

銀行內容의充實로

【電通東京電話】 大藏省에서는銀行金融의 合理化를圖하야 昭和七年下期以來全國銀行에 對하야減配를 慫慂하야온結果 每決算期마다 多數의減配를보게되엇든대 銀行局에서 調査한今年上期의 配當豫想에依하면 特殊及貯蓄銀行은 全部据置、普通銀行의減配는 僅僅二十八行에긋치고減配의 傾向도 一段落을 지어다고보이어 大藏省에서는 減配가 完全히 奏功하는同時에 銀行內容이 充實하야젓다고 觀測하고잇다

對外爲替市況

【東京十五日電話聯合】

▲東京爲替
對米 賣廿九弗八分一 買廿九弗四分三
對英 賣一志二片卅二分三 買一志二片卅二分五

▲大阪爲替
對米 賣廿九弗八分一 買廿九弗十六分三
對英 賣一志二片卅二分三 買一志二片卅二分五

鮮航會新運賃 十六日에協議

鮮航同盟會에서는 六日 午前十時부터 大阪本部에서 臨時評議員會를 열고 各地支部로부터의 要求에 基하야 盟外船對抗新運賃設定의件에 對하야 最後的協議를 하고 正式으로 態度를 決定키로되엇다

通商擁護法適用

日本品壓迫國全部所及

【東京電話聯合】 對加奈陀貿易調節을爲하야 政府는 드듸어 十六日의閣議에서 通商擁護法發動에關한 勅令案을 附議決定하기로되엿는바 今回의擁護法發動은 加奈陀만을 目的으로하는 것이아니라 日本全體의 貿易調節通商擁護의見地에서 發動하는것인데 日本에對한 極端的 防遏處置를 講究하고잇는 諸國一般에 適用되는것으로 加奈陀外의 諸國도 右事情에잇는 諸國에對하야서는 當然適用을보게될터이다 따라 加奈陀의一部에서 非難하는바와가티 加奈陀만에對한 報復處置가안임은明瞭하다

肥料工場直營 廣東政府에서

【東京電話聯合】十三日香港入電에依하면 廣東政府는 今回三百萬圓을 投하야 政府直營의 肥料工場을 建設하고 着着計畫을進行하고잇다 于先硫安過燐酸의製造를하게되어 이미英國製機械를 英國부터 二十萬元으로 購入契約을하얏는데 機械는 이미 到着되야 技師의손으로 据付를 急히하고잇다 硫安의製造는今年夏中에는作業을開始할豫定인바 中國地方은 將來日本硫安의 消費市場으로 囑望되고잇더니 만치 日本當業者에 多大한衝動을 與하고잇다

米生産費會打診

"數字加減은不能"

朝鮮認識에努力키로

◇…明日農林局首腦部渡東

累報한바와 가티過般外地米生産費調査委員會는 雙方의意見不一致로 結局아모成果를보지못하고 中止하엿는바 二十二日부터首相官邸에서 委員會를再開하기로되야 朝鮮側委員 矢島農林局長은十六日晝車로 山澤農産課長과石塚技師는 同夕車로京城驛을出發하야 渡東하기로되엇는데 出發을압두고 山澤農産課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이번에 生産費問題가 解決될는지 안될는지는 委員會의 [illegible] 말하기어려우나 日本內地側이 從來와가튼主張을 하고보면 亦是 問題는 困難케될것이다 元來朝鮮米의 生産費는 그것이 卓上에서 맨드러내노흔 數字가아니고 巨額의經費를 써가면서 各地에 調査員을 派遣하야 實際調査한것이라 數字를 加減할수는 업는것이다 그런데문으로 日本內地側 어떠한委員은 朝鮮米生産費를 十六圓云云하는것은 全然 朝鮮의現實을 알지못하는數字라고 [illegible] 參考書類도 만히 가지고 갈터이며 될수잇는대로 日本內地側委員에게 相當한說明을하야서 圓滿한解決을 짓기에努力할터이다

有賀殖銀頭取 十四日發渡東

有賀殖銀頭取는 廿一日로부터 열릴 米穀生産費調査會에 出席키爲하야 安井秘書課長을帶同하고 十四日 午後十時五分發車로 渡東하엿다

朝滿間郵便爲替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六月中取扱한 滿洲向郵便爲替의振出金額은 三十一萬三千九百三十四圓이며 또 滿洲로부터 朝鮮에보내인振出金額은六十六萬八千四百八十一圓으로 差引三十五萬四千四百五十七圓은 郵便爲替에잇서서 滿洲로부터朝鮮에流入한셈이다 그리고이것을 前年六月中의取扱高에比較하면 朝鮮振出滿洲拂은 八分五厘 滿洲振出朝鮮拂은九分의各減少이다

▲六月末採鹽高

【專賣局發表】六月末現在 採鹽高는合計一億七千百五十四萬二千斤인데 이各所管內別은 朱安管內七千二百二十三萬斤、廣梁灣管內七千九百三十二萬五千斤、南市管內千九百九十七萬七千斤이며採鹽豫想高는 一億八千四百四十八萬九千斤이라한다

經濟界消息

○漢銀定期總會=漢城銀行에서는 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定期總會를열고 決算案을 附議할터인데 株主配當은 年三分이라고

○朝銀麗水支店長內定=【電通東京電話】朝鮮銀行에서는 全南麗水에 支店을 設置하고 八月一日부터 開店키로決定한바 그初代支店長에는 現本店支店課次長三谷俊博氏가 就任키로 內定하고 羅津의初代支店長으로 決定하는同時에 正式發表키로되엇다고

○土地改良解散總會=土地改良會社에서는 今月廿五日 午前九時同社에서 定期株主總會를 열고
一、當期諸決算承認의件
二、同 損益計算書承認의件
三、取締役任期滿了에 對하
四、當時解散에關한件
五、淸算人選任과 報酬決定의件
을 上程할터인데 目下淸東中의 久保專務는 廿日頃歸任할터이라고

○京電馬山支店瓦電讓渡=京城電氣會社馬山支店과 朝鮮瓦斯電氣會社의 兩支店은 讓渡交涉中이더니 이번 遞信局의斡旋에依하야 讓渡協議가成立하엿슴으로 兩社가 모두不遠總會에 諮問하야正式契約을하기로되엿다 讓渡價格은極秘에 붓치나 九十萬圓內外가 될모양이라고

高價에서踏步

東京地場은 總懸化에서硬化하고休日前은 生保團의買出動으로主力株難攻進의 上勢를示하얏고今前場은東新百四十圓丁 日産七十圓九十錢의 高價까지올엇슨바 東新으로말하면 昨年十一月의 東京株期百十九圓九十錢에서依復된것이라고 買하야보앗스며 實은三片의反戾에不過하얏스며 다시내리어 六月十九日의百三十一圓七十錢에서 底入된것이라고買한터이나 이것은小落에對한小戾이엇다 이러한것으로 底入은안되며 去益市勢를刺戟化케할뿐으로서 어떠한것으로던지 動搖가되어 一氣로三十圓幅의慘落이잇서야만 비로소底入된것이라할수잇다는弱氣論이잇고 日産으로말할지라도 會社內容悲觀、株影販賣迫等으로보아 七十圓維持가可能할지 尙疑問이不無한모양이엇다

大局展開難?

株式市勢의 目前的動態는市場그때의 氣分에 支配되는것으로서 近著의 市勢氣分을察하면 一年餘의下市勢에 戰厭症이생긴데다가 六月末부터 閑散低迷保合으로 底入觀이强해지어 買코저하는모양이고 大口의買物이보이어 部分的으로 비싼것이나오는터로 底入되엇스니 買할수밧게업다는結論이생기는것가튼다 그러나 氣分이나價位低下에만가지고는 市勢를 基調的으로恢復식힐수 업는것이 매정함 依復은 財界大勢에 新展開가豫想되어야만한다 그러면 財界大勢는如何하냐하면 公債消化力이 限界에 達하얏스니

後場細刻

後場은 東新百三十九圓四十錢 日産七十圓五十錢에 凡調子後細刻裡에 保合이고 別觸가티大引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休日後의 市場은金利低想과株式高로買氣强하야高를示하얏다

甲五分利	一〇四、〇五
一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六、五〇

株式 買氣一息 頭重

前場仲悩

今前場은東新百四十圓丁 日産七十圓九十錢 大新五十錢 朝新二十八圓丁의高價가잇섯스나 利喰과 高價警戒로伸悩하야結局再昨前引보다低價인 東新百三十九圓三十錢 日産七十圓二十錢 朝新二十五圓九十錢에各引

▲朝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七	五七	五、三六〇
東新	四二	五一	七〇、二六〇
大新	三四	五六	七六、三三〇

實物前場取引

實買高二百枚

▲大同電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鬼怒川新 [illegible] ▲帝麻新 [illegible] ▲京南鐵道 [illegible] ▲殖銀新 [illegible] ▲金剛電鐵新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朝鮮石油 [illegible]

商況(十五日)

立會時間繰上

十五日申請手續

朝取에서는 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重役會를開하고 商議員會에서 諮問한 證券部立會開始時間改訂(十分繰上)及이에伴한 業務規定變更의件을 原案대로 決定하고 直時認可申請의 手續을하얏다

期米 拂下無響 暴騰

前場暴騰

再昨後場阪地三十圓六十五錢止와共히 二十八圓六十錢에 寄合止한當市場은二休今前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七十錢인 入丁高를刺하고 二十八圓七十五錢인 十五丁高로寄合한後 阪地五節八十五錢으로一錢까지少强하엿다가 八十三錢에止場하야 當市도一時十六錢에小落하엿다가 九十一錢의最新高價로 寄止하엿다

後場續强

後場은二十八圓九十五錢에 四丁高로寄附後二節二十九圓丁에올르고 四節八圓九十一錢에反軟하야別觸가티 止場하다

品貴市勢展開

好順氣도不拘

移秧期에入한 以來의 天候는忠南、全南의雨量不足과 關西及北九州地方의 水害를除한 外에는 大體好順氣를 呈하야 豊作의 謳歌를呈하나 그러나 米價에는 何等의 影響이업시 昂騰一途로 去益高價를 示할뿐이다 그 原因의 所在는 正米의 實際事情이 低落을 不許함으로써인데 實로 七月一日現在 殘存米의數字가 二千七十萬餘石으로 朝鮮米及臺灣米의 日本內地移入을 約四百萬石으로 限定한다할지라도 端境期의 需給窮屈은 免치못할것이며 勿論如意치못하리라하야 硬派는絕對買方針을 樹하는 光景이다 政府의今後態度가 何如할지 五十萬石拂下決定이나 아로서는不足하고 其實殘米數字는 拂下를하나 아니하나 變함이업스리라하야 그다지 弱材視하지안는모양이다

實際로 보아서 그다지 樂觀할餘地가업고 本年의 稻作이 아무리豊作이라 假定한다할지라도 實際의需給問題와 淸算市場의受渡問題에는 何等의關聯이 업게됨으로 結局硬派의主張하는 材料가 現實의影響을 밧게된다 그러한 關係로보아서 未來의豊作을 말하는理想보다도 實現의情勢를度外視하지못할것은 事實이 證明하는바이다

一考할强弱材

結局强材優秀

强軟兩方의 主張하는바에依하면 强派는 言必稱前途需給難을免치못하리라하야 買賣成을하는反面에 軟派는 政府의所有古米百萬石拂下의弱材로서 對抗하려하며 又는硬派의手當米蒐集難을 强材視하는反面에는 稻作의順調로서對敵하려한다 이外가티兩派의各自一理가업는바가아니나 그러나政府의拂下는 五十萬石決定으로 이拂下實行에 依할지라도 今後纏粗上의天候는 마치心痛거지시 어머니의얼골가틈으로 그心術을 [illegible]

米

今回의 降雨는 바로 大水亂을 일으킬것 처름 天候가險惡하엿스나 그雨量으로보면 仁川七耗、京城十一耗、全州十五耗、木浦一耗에不過하엿슬뿐이다▲旱地인全南地方과 忠南一部가十耗에未滿한 雨量으로서 旱害를一掃하지못하엿슴것은事實▲아즉도 雷霆과 雷雨소리와 함께 一大豪雨가 쏘다질지도 몰으나 아즉은 알지못할일▲一部的으로 水旱兩材가 업는바는아니나 大體로보면 今年의豊作을可期▲아무리豊作을 豫想한다할지라도 現實의正米의事情은 需給의窮屈을 免치못할情勢인즉 實賣成을할수는업는것▲軟派는 言必稱 政府米의拂下를唯一한 弱材로보고잇스나 拂下를한다할지라도 今後持越에 잇서서는 또한樂觀不許▲그러할뿐만아니라 政府의 態度가 아즉도不鮮明

株

東新百四十圓丁、日産七十圓九十錢에까지올는고利喰押 ▲穩健하면穩健하다것지만 東新은去六月十九日의百三十一圓七十錢 日産은七月八日의六十五圓九十錢에서各十圓戾면기人것이아닌가?▲生保團買出動을傳하나소리만것지果然얼마나살것인지 큰것을期待하며 財界實情이 어떤지 株의一氣棒上을 許할것이엇는지 氣味에追伴하야 高價買키는 조심될듯 ▲新日産株(現在十八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二ノ一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六五

金.銀.白金
地方注文代金引換送品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各地正米

京城暴騰

端境期의 急反騰에 刺戟되어 氣配四十錢暴騰되어 三等二十九圓二十錢 四等二十九圓丁 一等白米三十一圓三十錢

仁川奔騰

期米急騰을 듯고 阪地定期筋手當의 入庄가相當하나 一般所持는 品薄高를當로보아 賣腰를 더욱强하고 地場精米側도 原料難에處한狀態로서 市勢는 昨日比보다 四十錢奔騰을告한 三等二十九圓二十錢 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三十二圓二十錢

釜山小强

市場殘物三千叺 定期强調와原料高等으로依然實腰强하고 내리지안코나 移出側의 人氣만이오 市況이 閑散을告하야依然取引이 限定되모양으로서 七七六叺의 取引이잇섯다 氣配十錢高인 角フ三等二十九圓丁 四等二十九圓二十錢 一等白米三十一圓三十錢

大邱急騰

端境期品薄의 對策深刻으로 實需間의 手當難狀態이오 拂下發表도 人氣에不聯하고 期米急反騰을入하야 氣配三十錢急騰을告한 角フ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一圓六十錢

群山反撥

殘貨一萬餘叺物源으로 强調인데다가 淸算期近의 暴騰을듯고 去益高價를 가이 深甚하야 氣配二十五錢反撥인 ◎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九圓丁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强含

政府米追加拂下發表가잇섯스나 僅少하야 人氣强調하고 阪地定期側의 買氣를 豫想하고 市況은閑散이나 十錢高의 强調를示하야 多丸示[illegible]三等二十九圓六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雄町三等二十八圓九十錢

南浦爆騰

五十萬石追加拂下發表이나 市場人氣는 期米의 硬騰을 告하야 氣配一氣로八十錢爆騰으로 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八圓 一等白米十二圓丁

今日財界(十五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三等米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一斤價在來 [illegible]
◆市中金融 錢金 [illegible]
◆株 (單位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三品 [illegible] 現物 [illegible] 高無 [illegible]

金融 十五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勢◆ 十二日 [illegible]
◆日本銀行勢◆ 十二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十五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十五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スフ五期米◆ 十三日 [illegible]
◆綿油平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綿花外値◆ [illegible]

株式 十五日

◆朝取短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定期米實際高◆ [illegible]

期米 十五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實際高◆ [illegible]

商品 十五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紐育 [illegible] 倫敦七・八月 五百七二仙一分一